朝鮮日報 朝刊

社說

自然과 人間의 調和
水害風災等을 例로서

一

自然現象의 變化와 人間生活의 進步는 그 度數가 科學文化의 向上에 依하야 制約되어 왓다. 人間이 自然을 어느 程度까지 支配하고 自然의 一部分이 또한 이 人間生活에 寄與하는 交互關係의 一聯의 行程이 곳 오늘날 物質文明의 總和이다. 그러나 오늘날 高度로 發達된 科學文明으로도 制御할수업는 自然界의 現象, 究明하지못한 그 現象의 根源이 아즉도 업지 안타. 世俗에 이르는바 自然的不可抗力 乃至 未發見된 原理原則이란 다 人間의 努力을 기다리고잇는 領域이다. 이 領域中에 잇서서도 水亂、風害、震災等 天變과 地文的 理由로서오는 自然界의 非正常的變化는 人間生活에 크다란 脅威가 되고 잇스니 爲先 最近의 例를 들더래도 昨年의 日本內地 關西大風害, 臺灣의 大地震 또는 이따에 잇서서는 再昨年昨年 兩年에 亘한 三南大水災와 現在의 鴨綠江의 汎濫으로서 생각기는 對岸으로 일어나는 悲劇을 想起하면 充分하다.

二

그러면 이러한 天變地異에 關한 人間의 災難은 宿命的事實로서 어쩔수업는 일일가? 洪水의 威勢에 놀낸 古代希臘의 哲學者 탈레스가 萬有의 起源을 『물』이라고 소리친것과 같은 素朴한 直觀으로써 事物의 原理를 究明하든 臆說時代가 지나고 『물』의 化學的成分을 分析하고 물의 威勢를 電氣動力化하고 잇는 現代人으로서는 勿論 안될 말이다. 震災雷電을 들을때에 原始人이 感하든 恐怖와 歸依의 感은 素朴한 精神의 觀念을 生케 하얏지마는 近代人은 이 現象을 究明한結果 이것을 『에너지』로써 널리 利用케되야 近代科學文化의 豪華版을 이룬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이러한 自然에 對한 人間의 利用率이 모든 自然現象에 及하려고 하고 잇는 現代에잇서 風災水災等의 災難에 對하야 消極的態度를 取한다는것은 文明人으로써 恥辱이 아니라고 할수업는것이다.

三

人間이 아즉 自由로 調節할수업는 天變地異에 對한 積極的 克服方法은 爲先 그 被害減少 乃至 그 豫防을 爲한 施設工作으로서 나타낫다. 오늘날 各國의 內行政의 重要한 項目이 되고잇는 治山治水事業의 周到한 發達은 和蘭國의 海水防禦堤防에서 봄과가튼 大規模의 것을 爲始하야 實로 驚歎할만큼 發達되어잇서 거의 完璧에 갓갑게 되고잇스니 建築物의 不完全으로서 오는 風害의 甚大, 治山治水事業의 不備等으로 오는 水害의 甚大는 結局에잇서 民度가 낫다는 證左가되고 그 生活集團의 指導하는 階級의 努力이 不足하엿다는 同義語가 되는 다.

四

自然을 利用하는 技術이 現代와가티 高度로 發達된 時代에 잇서 그 貴重한 自然技術이 普遍的으로 모든 生活人의 幸福을 爲하야 利用되지 못하는 理由로는 무엇보담도 社會現象을 統制하는 社會技術이 自然技術의 發達과함께 그 度를 함께하지 못하야 自然技術의 運用이 뒤진 社會技術에 依하야 制限當하는 現象을 볼수가 잇다. 努力하고십흔者가 努力할 機會를 엇지못하는 社會的 制限下에 잇서서 科學과 『에너지』가 死藏됨으로써 生하는 自然界와 人間으로부터의 乖離는 그 典型的인 한가지 事實이다. 自然技術과 社會技術이 併進的으로 發達되지 못하는限 自然으로서 밧는 惠澤이 적은 反面에 豫防할수잇는 人間의 被害、社會的悲劇도 反覆안될것을 斷言할수도 업다.

李培基氏任命

【電通上海卅一日發】三十日國民政府 行政院會議에서 決定된人事는 今日正式으로 發令되엿다

河南省政府民政廳長 李培基 (任河北省政府民政廳長)

英下院夏期休會

【倫敦三十日發聯合】英國下院은 八月二日로서 夏期休會가되고 十月二十九日 再開키로 決定하엿다

『에』國保護領化엔 英政府絶對反對
伊의經濟的立場은考慮하나 聯盟原則貫撤決意

【巴里三十日發聯合】런던서 首相과 會談한 이든英代表는 壽府到着後 左의 方針으로 和協試案의 實現을 圖할것으로보인다

一、에디오피아國에 對한 政治的管理 紛爭解決을 爲한 武力行使에는 絶對反對하고 聯盟原則의 貫徹을 期할것

一、그러나 經濟的方面에 잇서서는 充分히 伊太利政府의 立場을 考慮할것

一、伊太利代表部가 右要請에 對하야 讓步的態度를 示하면 特別理事會에서도 특히 和協委員會의 第五委員을 任命하는 程度에 끈치고 一般討議는 八月二十五日의 理事會까지 延期하고 그동안에 和協試案의 實現을 圖할것

一、그러나 萬一 伊太利政府가 끗까지 態度緩和를 拒否하고 依然히 에디오피아를 保護領으로 할것을 主張하는데 잇서서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야 平和維持를 爲한 徹底的態度를 考慮하도록 要請할것

에代表壽府에

【電通巴里三十日發】聯盟에디오피아代表 떼구라、하아이잇트氏는 三十一日에 伊에紛爭問題聯盟理事會에 出席하려고 十日巴里로부터 壽府에 向하야 出發하얏다

戰期切迫覺悟코 『에』國、白人士官募集
每人에二百磅支給

【케이프타운三十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軍의 進擊에 備코저 南阿聯邦各地에서 白人將校를 募集하고잇는데 三十日에 至하야 皇帝 하일레·셀라시에 一世는 同募集員에게 電報로 戰機가 切迫하엿스므로 英人士官을 派遣하도록 要請해왓다 募集에當해서는 將校一人에 對하야 二百磅을 支給하는 外에 白人士官의 武裝과 空中輸送의 便宜를 與하고잇서서 今後 續續 白人士官이 에디오피아國境으로 空輸될것으로 보인다

和蘭新內閣面影

【電通海牙三十一日發】和蘭新內閣의 閣僚는 코라인首相의 三十日夜半까지의 折衝으로 如左히 決定하야 三十一日 午前中에 公表될터이다

首相、植民相、國防相 헨드릭·코라인

社會相 스링겐베르그

農業相 린·디카스博士

商工相 게릿센敎授

他는 全部 前코라인內閣閣員의 重任인데 코라인氏의 三相兼

對比島貿易에 紳士協定要望
米國國務省의意向

【電通華盛頓三十日發】米國國務省은 比律賓의 日本綿製品輸入에 關하야 齋藤駐米大使를 通하야 日本政府當局과 交涉을 開始하엿는데 日本은 比律賓에 顧客인데 鑑하야 比律賓에 關하여도 强制的制限을 行치안코 專혀自發的輸出制限을 基礎로한 紳士協定締結을 根本方針으로할 意向下에 交涉을 進行할意圖인데 日本의 輸出業者가 實行한 綿絲와 綿布의 對米輸出統制와 軌道를가티하야 日本綿布의 比律賓輸出의 累增傾向을 防止하려 하고잇다 이에 對하야는 日本側의 當業者도 條件이 너무逆轉的이아니면 贊成할 意思가잇스리라고 當地에서 觀測하고잇다

高率保護關法 憲法違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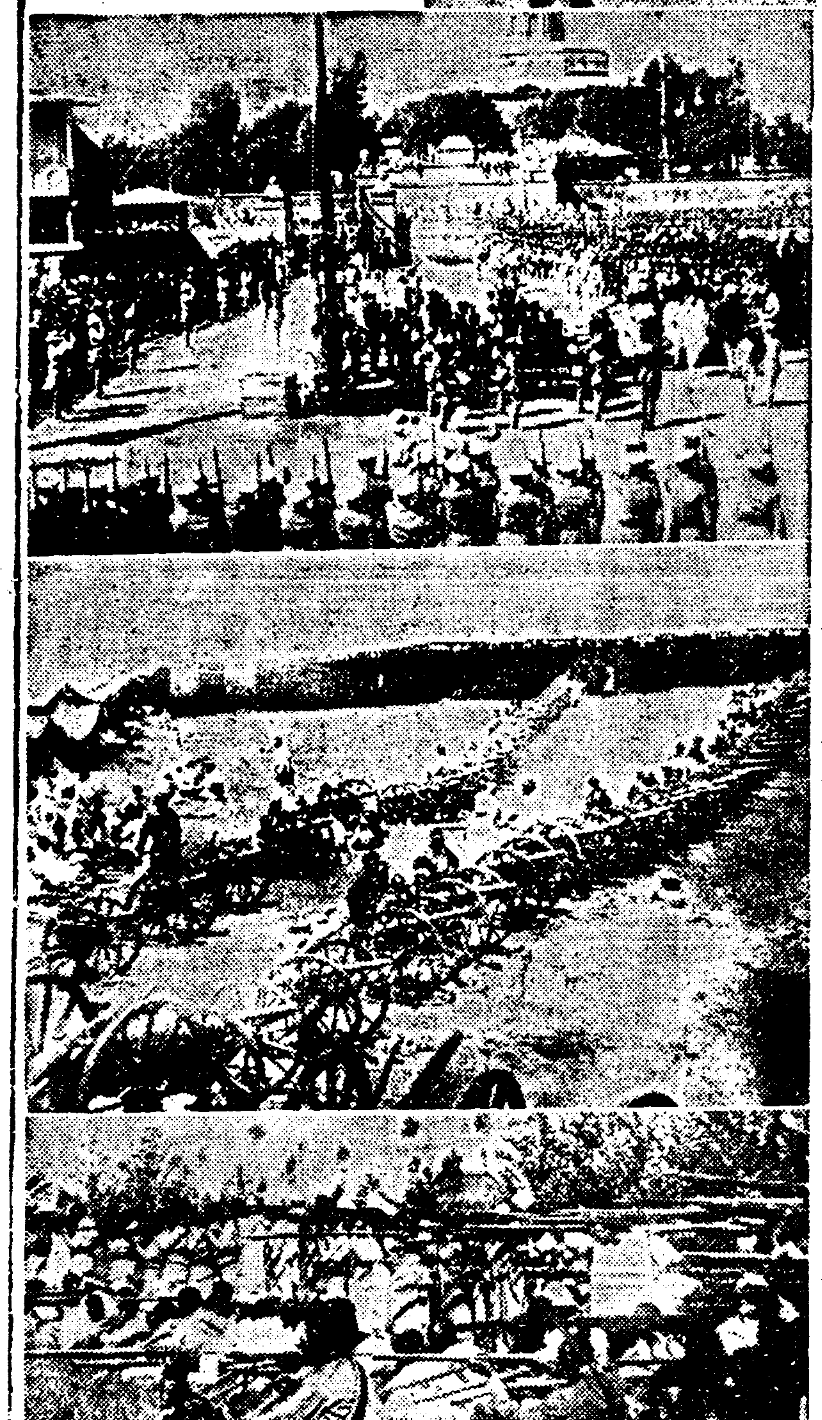
【電通華盛頓卅日發】텍사스州農民代表 르카스氏는 텍사스、루이지아나、오크라호마、아이오와、아라바마、미시식피 各州의 工業側으로부터 農業調整局法의 違憲訴訟에 對한 報復으로 保護關稅無效訴訟을 提訴하야 工業家에게 一大痛擊을 與하려고準備中이라는 旨를 三十日 發表하얏다 即 工業家는 加工稅를 免하기爲하야 農業調整法의 缺陷을 차저 農業調整局의 農民保護政策에 破綻을 生하는것을 全然 不顧하는것은 農民에 對한 工業家의 利己的行動이라고 하고 萬若 加工稅가 違憲이면 外國品에 對抗키爲하야 工業家의 要求로 設한 高率保護關稅도亦是重大한 憲法違反의 點을 包含하고잇스므로 이것을 提訴하야 痛擊을 與하려는것이다

日本政府에서도 正式抗議文提出
堀江採金隊의內火艇에蘇聯側서發砲한事件
問題는漸次擴大될모양

【電通哈爾賓卅日發】去九日 黑龍江과 莫河의 中間에서 蘇聯側의 게·페·우의 監視員三名이 突然 日本旗를 揭揚한 日本堀江採金隊內火艇에 發砲한 事件에 對하야 滿洲國外交部는 去十日 蘇聯側에 抗議書를 提出하엿든데 日本側은 二十七日 正午 哈爾賓에서 加藤總領事는 스라우스키-蘇聯總領事를 通하야 莫斯科政府에 左의 趣旨의 正式抗議文을 提出하엿다

日本旗를 揭揚한 日本船舶을 理由업시 襲擊한것은 日本旗에 對한 重大한 侮辱인 同時에 日本帝國도 侮辱하는것이다 따라서 發砲한 게·페·우三名의 處罰、蘇聯政府의 陳謝와 將來에 對한 保障을 要求함

이에 對하야 스라우스키-總領事는 卽時 本國政府에 通達하겟다는 旨를 回答하엿다



最近에디오피아風景

一、最近首府아지스·아베바에서 擧行된觀兵式때에 勅語를나리시는하일레·셀라시에陛下(左헤르멧트帽)
二、觀兵式 三、野砲兵隊
四、機關銃及小銃操作演習

對日態度決定할 北平政務整理委員會議
來十五日開催決定

【電通北平卅一日發】北平政務整理委員會議는 北中新情勢에 適應할 對日態度決定을 主要議題로 開會하려고 압서 王克敏氏로부터 河北、山東、山西、察哈爾、綏遠五省主席 北平、天津、靑島三特別市長에게 招請狀을 發하엿던바 各主席의 參加回答이 잇서 畢竟 來月十五日부터 三日間 北平政務整理委員會本部에서 開催키로 決定하엿다 會議에 압서 新委員으로 商震、秦德純、程克의 任命이 잇슬터인데 會議出席者는 如左히 北中五省의 軍政、財政、敎育各界最高權威者를 網羅한 劃期的大會議이다

▲山東省主席 韓復榘▲山西省主席 徐永昌▲河北省主席 商震 ▲察哈爾省主席 秦德純▲綏遠省主席 傅作儀 ▲北平市長 袁良 ▲天津市長 程克 ▲靑島市長 陳鴻烈 外에 學界로부터 北平研究院長 李石曾 北京大學校長 蔣夢麟 天津南開大學總長 張伯苓 財界로부터 金城銀行總裁 周作民 政界로부터 湯爾和 王樹翰 張志潭氏等의 列席을 보게되리로 日中提携의 根本原則을 決定하고 經濟提携의 範圍限度에 對하야 重要意見을 交換하야 結局 北中의 日中提携及經濟開發은 本會議의 決定을 基準으로 實施될터이다

宇垣總督歸京談

歸任以來 沈默을 지키고잇던 宇垣總督은 三十一日 記者團과 會見하고 如左한 渡東報告談을 試하엿다

朝鮮의 實情이 日本內地에 잘 理解되고 半島의 眞相이 顯著히 日本內地人에게 認識되고잇는것을보고 참으로 愉快를 感하는同時에 今後는 互相의 一擧一動이 一段더 意義잇고 또 感銘이 잇는것으로 考慮할必要를 認定하엿다 中央政府에 折衝할 必要가잇는 豫算方針에 對한 朝鮮의 立場 其他新規事業으로서의 朝鮮更生十個年計劃, 이와 倂行的으로 實施할 普通敎育의 普及、移民事業、地下資源의 調査、鐵道의 建設改良等에 關한 이쪽의 希望은 大體로 諒解를 어덧스므로 今後는 具體化에 精進할터이다 日本內地의 政情은 短時日의 滯在요 또한 밧갓으로 奔走한 나에게는 適確한 判斷이 서지아니하엿다 그러나 一般의 評으로는 政局도 當分安定되엇다고하는데 적어도 나도 그것을 希望하는 一人이다 今回의 渡東으로 다마하나 中央에 印象을 남기고온 것은 心田開發이란標語를 與한것이다 朝鮮은 目下 梅雨氣分이나 한번 海峽을 넘어서 朝鮮에 들어온즉 日本內地에 比하야 明朗하고 平靜한것을 渡東할때마다 느끼을 깁게한다

英人記者 反滿軍에게拉致

【北平三十日發聯合】北平英國大使館에로의 入電에 依하면 察哈爾省 榮昌(沽源 西方 百二十粁)에 잇서 去二十七日 夕刻頃 二英人記者가 匪賊에게 拉致되얏다는 模樣인데 目下 匪賊의 系統等은 詳細不明하나 該匪賊은 身代金十萬元을 要求한다고 傳한다 그리고 二英人의 氏名은 極東漫遊中인 만체스터가-디안紙 記者 존스와 北平駐在獨逸某通信社記者 미올러(英國人)의 兩氏로 英國大使館에서는 目下救出策을 考究中인데 이事件은 注目의 焦點이 되어잇는 察哈爾 蒙古에서 發生한만큼 同地方을旅行하는 外人에게 一大恐怖를 惹起하야 그 推移는 重大視되어잇다

米參戰回避法案
多少의修正은難免?

【電通華盛頓三十日發】亞米利加上院 民主黨議員 클라이氏는 나이氏와함께 大統領의 希望에 依하야 參戰回避의 中立維持機構法案을 起草中이던바 요즈음 起草를 終了하엿스므로 上院에 提出함에 압서 三十日 이것을 國務省에 回付하야 內査及 批評을 請하엿스므로 필립스國務次官은 노만、데비스、무어兩氏를 招致하고 이것을 檢討中인데 原案에는 同意하지안코 修正을 加할 意向인 모양이다 그러나 클라이氏는 交戰國에 對한 政府의 商業 크레디트의 禁止及 軍需品輸出禁止의 原則은 變更되지 안흘터이라고 말하엿다

駐日英大使 重光次官訪問

【東京電話聯合】【駐日英國大使크라이브氏는 三十一日午前十一時半 外務省으로 重光次官을 訪問하고 歐洲問題를 中心으로一般問題의 情報를 交換한後 午後一時半 辭去하엿다

明年海軍豫算 七億一千二百萬圓
新規要求三億一千萬圓

【東京電話聯合】海軍에서는 年度豫算에 關하야 今月九、十兩日 省議를 開催하고 各部局提出豫算案에 對하야 大綱의 査定을 了하고 繼續하야 計數整理를 行하고잇던바 三十日 編成을 終了하엿스므로 三十一日午前 村上經理局長은 大藏省에 赴하야 要求豫算을 提出하엿다 要求豫算의 綱要는 如左하다

基準豫算 四億二百萬圓
新規要求 三億一千萬圓
合計 七億一千二百萬圓

그런데 同豫算案의 基調로 삼는바는 第二補充計劃遂行의 根幹이로하고 아울러 財政과 國防의 調整을 考慮에 너허 緊急不可缺한것을 計上하고 代艦과 新建造를 包含하는 所謂第三次補充計劃에 對하야는 軍縮會議의 情勢에 臨機對應케할것을 原則으로하야 明年度豫算과 經離하엿다 新規要求의 主要한것은 如左하다

水陸整備費 七、七〇〇萬圓
艦船整備費 七、五〇〇
軍需品整備費 四、五〇〇
新艦船維持費 二、三〇〇
研究費 三五〇
滿洲事變費 一、〇〇〇
航空隊設備費增 二、五〇〇
艦艇建造費其他 五、二〇〇

滿鐵總裁後任은 松岡洋右氏로決定

【東京電話聯合】林滿鐵總裁의 辭意表明은 別項과 가튼데 後任總裁에 對해서는 林對滿事務局總裁와 岡田首相과 協議한 結果 압서 同社副總裁이던 松岡洋右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엿다

【東京電話聯合】林滿鐵總裁는 압서 關東軍과의 사이에 意見의 隔隔을 招來하엿기 때문에 辭意를 抱懷하고잇섯든바 今回 이決意를 告하려고 三十日 着東以來 三十一日까지에 兒玉拓相과 各各 會見하야 林陸相과 岡田首相과 會見하야 辭意를 表明하고 善後策을 協議한結果 드디어 辭職키로 決定하엿다 따라서 林總裁는 一日午後三時 東京驛發 一旦 歸任한後 다시 正式辭表를 提出하기로되엇는데 政府는 이미 軍部關東軍側과의 사이에 後任을 銓衡하고잇섯든바 南關東軍司令官과 密接한 關係에 잇는 元滿鐵副總裁이엇고 國際聯盟日本首席全權이던 松岡洋右氏를 推薦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政府는 御殿場의 別邸에서 避暑中인 松岡洋右氏에게 交涉하게될것이다

(寫眞은 松岡氏)

肅軍冊子問題
더重大化안할듯

【東京電話聯合】今回 敎育總監更迭에 關連하야 村中孝次大尉、磯部某 伊藤主計와 連署로 頒布된 肅軍에 關한 팜프레트에 對하야는 所謂十月事件 三月事件等의 內容이 暴露되대서 陸相以下 軍首腦部는 此를 重視하고 그處置에 對하야 上聞에 ##하엿든바 팜프레트發行動機가 部內의 統制를 擾亂케하려한데 잇슴으로 此際 嚴正한 軍紀上 處置를 하기로되어 이미 停職處分에 附하엿는데 今後에도 此種行爲는 斷乎取締하리로 本問題는 이以上重大化하지안흐리라고 軍當局은 言明하엿다

一事一言

主要道德의 吟味 (1)

艮白山人

傳統的道德은 權威를 일코 新道德이 아직 傳統化되지 못한 오늘의 朝鮮은 마치 道德的無政府狀態라고 하게되엇다. 어듸서는 弟子들이 一日의 勞役을 敎하여 내어서 恩師의 困窮을 救하엿다 하고 어듸서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라다가 제 몸이 죽엇다는것을 큰 美談과가티 讚嘆의 눈으로 보게되엇다. 무론 이러한 行爲들이 善行이 아님이 아니나 이러한것은 當然한、恒茶飯事로 보게되는 날이야 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다. 우리는 미더야할 친구의 말도 額面대로 듯지아니하고 에누리를 하지아니하면 아니되고 間諜라는 사람의 마음도 아침마다 無事한가 하고 근심하지아니하면 아니 되게되엇다. 事件가 利欲을 따라서 侵害主義의 神에게 敬拜를 들이게되는 오늘에 우리네의 主要한道德律의 意味를 檢討하는것이 부질업슨것은 아닐것이다.

滿洲國鑛業法에依하야 鑛業稅法發布
鑛業登錄令及登錄稅發布

【新京一日發聯合】滿洲國財政部에서는 鑛業法의 施行에伴하야 從來의鑛業關係 課稅를 統一한 新鑛業稅法을 發布하얏다 鑛業稅를 鑛區稅、鑛産稅의 二種으로하고 課稅制限及 取締罰則을 規定하엿다

【新京一日發聯合】鑛業法의 施行에 伴하야 滿洲國政府는 八月一日附로써 鑛業登錄令及登錄稅法을 發布하엿다 登錄令은 六十二條로되어 鑛業權 租鑛權讓渡權에 關한 登錄手續及 異議訴願等을 規定하엿다

機關說排擊에 政友도聲明發表

【東京電話聯合】國體明徵 天皇機關說排擊撲滅을 期하기로 決定한 政友會는 三十一日 午前十一時 總務委協議會 午後二時부터 幹部會 同三時부터 議員總會를 開하고 鈴木總裁以下 久原長老各顧問 島田外總務 松野幹事長 及在京議員이 參集하야 먼저 鈴木總裁로부터 天皇機關說은 日本國體本義에 反하는것임으로 그 排擊絶滅을 期하지안흐면 안된다고 斷言하고 또政府의 이에對한 處置가 不徹底한것을 詰難한 要旨의 演說을行하야 크게 黨員을 激勵하고 滿場一致로 國體明徵 天皇機關說 排擊絶滅에 關하야 聲明을發表할터이다 그리고 同夜六時부터 日比谷公會堂에서 國體明徵 天皇機關說 排擊 大演說會를 開하고 國民의 覺醒을 促하기로되다

廣東空軍充實

【電通廣東三十一日發】昨年九月中 廣東省外의 元朗飛行場에서 試驗飛行을 行하엿던바 結果가 良好하엿다 그리고 同製作所以來 廣東의 航空에 對하야 自力으로 製作을 繼續하야 去五月末 大型完成하야 外人技師의 指導로 飛行機製作에 努力中인데 今後는 一個月二台式 製作할 豫定으로 廣東空軍은 이로서 一層 充實하게될모양이다

夕刊後市況 卅一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八四一〇 (不變)
鍾新 一二二八〇 (一〇低)
日產 一六九五〇 (不變)
東新 一三七五〇 (不變)

養正高等普通學校

中央佛敎專門學校

徽文高等普通學校

朝鮮中央基督敎靑年學校

京城保育學校 獨孤璇

協成實業學校 金麗植

京城貞洞 에취띄아펀젤라

普成高等普通學校 金敬弘

京城實業專修學校 金周益

大東商業學校 金萬壽

數滴吸血避타가 一族生命을犧牲

電燈裝置업거든蚊帳은勿用!

蚊帳을쓰거든반드시消燈 (二)

모기장화재라고하니 엇재좀귀에거슬려 들리지마는 이화재는 근래 모기장이점차 일반적으로 보편화되는데따라 갓차히 건수가 늘어가는 화재중의 하나이다 금번에들어서만도 지방으로는 밀양(密陽)유천(楡川)등지에서 경성지방으로는 부외신설리(新設里)에서 이모기장화재로 말미암아 세명식 혹은 네명식 일곱명식 수많은 사상자를 내엿다 이화재는 아직 그다지 만흔통계수자를 보이지는 안하나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는것인만큼 건수에비하야 희생자는 만흔것이 특증이다

▽……△

염제(炎帝)의 낭도위세가 한난계(寒暖計)의 수은주(水銀柱)를 구십도이상으로 올리고 내리는찌는듯한 여름밤 몸을떠못는듯이오는때에 땀이 쏘다지는때에 고대광실 높은방에 은은한 촉불이가득한 가운데 생초모기장을 치고 그속에 둥더러진 미인이 선풍긔바람을 쏘이며 반쯤누어잇다고하면 마치 어떤 그림속에나 나타나는 여름밤풍경과도가타야 잣못 시적정취(情趣)를 자어내겟것마는 한칸도 채못되는 좁은 방에 늙은이 어린이 대여섯식구식들어누어 빈대벼룩등의 각생들것에 피를빨리며 상을 에여가면서 잣장하일 종일토록 생활에 시달리여 피곤된 몸을몃시간동안휴식하야 밝는날에 소비할「에넬기」를 회복식히고져 다만 모기나라로 피하고저 몃해식 묵어준헤진 모기장을느리고 온가족이 잠자다가 키여놋앗든등잔불에서나 또는초스불에서 불이부터 전가족이 혹은 생명을 빼앗기고 혹은 화상을 입어 불구자가 되다고하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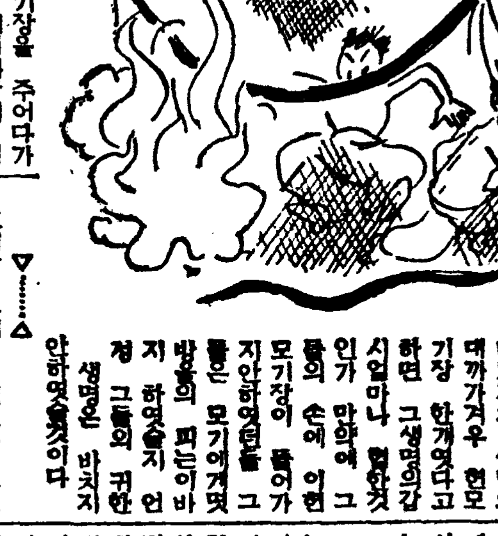
며욱이나 듯는사람의 눈물을 자어내는사실은 지난 십삼일밤 밀양군 상동면 옥산리(密陽郡上東面玉山里) 박성홍(朴成洪)의집에서 일어난 참극이다 주인박성홍은 어데로 품팔러나가고 업는터에 그의 안해 김(金)씨가 유천(楡川)역전 어떤집에서 내어버리는 헌모기장을 주어다가 그의 어린아들 세명과함께 평생의 처음 손에 어든 모기장이니만큼 조아라하고치고자다가 석유등잔불에서 불이부터 모기장이 타는바람에 미처 네모자(母子)는 뛰어나오지못하고 그대로 화상을 입어모다절명되엿다하니 이얼마나 가련한 사실이랴 네모자의 생명의 대까가겨우 헌모기장 한개엿다고하면 그생명의갑시얼마나 헐한것인가 만약에 그들의 손에 이헌모기장이 들어가지안하엿더들 그들은 모기에게몃방울의 피는이바지 하엿슬지언정 그들의 귀한 생명은 바치지 안하엿슬것이다

▽……△

모기장 화재의 원인은 그모다가 석유등잔불에서나 초스불에서 모기장으로 인화되는것이다 전등불이면 모기장에 다소 닷는다 하드라도 불이 이러날일도 업지마는 등잔불이나 초ㅅ불은 모기장에 닷기만 하면 화재를 일으키여 참극을 비저낸다 이러타하면 모기장도 역시 전등을 쓰지못하는 빈민층에나 전등장치가 업는 농가에서는 쓰는것이 구격이 맛지안는것인가?

▽……△

그러타고 전등설비가 업는집에는 절대로 모기장을 사용치말라고 서러울게드룰말은 아니다 전등장치가업는 집에서는 모기장을 친후 취침전에는 반드시 불을꺼버리는 습관을 드리어야할것이요 불을끄고 자지못하는습관이잇거든 등잔불켜든 방에는 절대로 모기장을 사용치안는것이조흘것이다 몃방울피를앗기다가 생명을빼앗기는 참사는 너무나원통한일이 아닐까!



交通杜絶된災地에本社員第一着

柳草島千餘住民 尙今도生死不明

切斷된線路上三千米濁浪을 漆夜片舟로突破

【新義州에서本社特派員高鳳梧電話】 삼십일일 새벽두시에 긔자는 선천(宣川)에 도착하엿는데 그곳에는 교통두절로 오도가도못하고 묵고잇는 손님이 이백여명에 달하야 도모지 그이상 더 갈수업섯다 그러든때에 선천에서마침 선로공부들만 타고잇는 구원렬차가 출발함으로 긔자는 인부로 변장하고 올라서 새벽여섯시경에 석하(石下)정거장에 내리엿스나 이곳으로부터 신의주까지는 흡사히 바다와가타야 도저히 처다만보고 건너가지 못할때에 요행히 배한척을얻어 수로삼천메돌(米突)을돌파하고 오후두시반에 겨우목적지인 신의주에 제일착으로 도착하엿다 도중에는 호우가폭주하는 어두운밤이라 철도연변에는 다만물소리만 들릴뿐으로 흡사히 망망한대해를 건느는듯 하엿다 신의주역 구내에는 피난민이 륙천여명이나 모혀잇고 시내각처에는 가족을일흔 피난민들이 서로울며 방황하야 눈물업시는 보지못할정경이다 신의주와 석하간의 선로는 방금 인부오백명이 복구공사에 전력을다하고잇스나 물이 원체만허 여의히공사가 진행되지못하야 언제나 개통될지 아직알수업는상태이다 백마(白馬)역에도 약삼백여명의 손이잇스나 물이빠지기 전에는 보행으로도 련락할수 업는터이다 그리고 압록강어구에잇는 류초도(柳草島)에는 약이백호 일천이백오십여명 주민이 거주중인데 경찰당국은 배를가지고 구조하러갓스나 아직 소식이 묘연하야 생사여부를 전연알수업다

가 가게를 보고잇는틈을 타서 일원짜리를 오원짜리라고 하고 이십오전짜리 소주한병을 사고 사원 칠십오전을 거슬려 갓는데 소관동대문서에서는 범인을 수사중이다

安奉線開通

石下新義州사이와 滿浦、价川線又不通

【安東卅一日發聯合】 안봉선(安奉線)일대는 목하점차 감수되는중인데 하마당남문(下馬塘南門)사이는 삼십일일 오후두시 오분부터 [illegible] 마치고 련산관(連山關)[illegible]차는 오후두시반에 봉천(奉天)으로 향하엿다 하마당(蛤蟆塘) 사하진(沙河鎭)량역간의 침수는 점차감수되여 금일오후네시반 시운전을 무사종료하고 이십구일 이래 불통이던 안동선도 겨우 개통되여 안동역에대기중이려든 삼백사십명은 오후다섯시십오분에 봉천을 향하야출발하엿다

경의선 석하(石下)신의주(新義州)사이의 불통개소는 삼십일일오전열시를 최고로하야 점차 감수되는중인데 현재 한시간에 약삼센치정도의 감수로아직어떠케 손을 대일수업서 레일하로의 감수상황을 보지안코는전연복구의 희망이 서지안허 목하 복구준비작업만 하고잇다

만포선 북신현 묘향사(滿浦線北新峴妙香寺)사이는 청천강(淸川江)의 범람으로말미암아 다시 불통이되여 렬차는 구장(球場)을 중점으로 운전중이다

개천선(价川線)도 일단 개통하엿스나 또 운흥리(雲興里)룡흥리(龍興里)사이는 불통이되여운전을 중지하엿다

朝鮮製絲休業으로 四百餘職工失職

經營困難으로月餘間休業

打開코저關係者活動

시내 숭인동(崇仁洞)에잇는 조선제사회사(朝鮮製絲會社)에서는 지난륙월 이십륙일 구견(舊繭)을 속하야 수백개의 가마와 한가지로 사백명 각가운 녀공들은 실업한을 뗏지 못하는채 놀고잇서 요란하든 동 회사공장은 죽은듯이 고요하여젓다 이와가치 회사가 휴업을하므로서 회사측도 회사측이려니와 사백명 어린 녀직공들은 생활상 크게 위협을 바더 매일까지 가삼을 조이며 개업의날을 고대고대하고잇다 이제 동 회사가 그와가치 휴업을 하게된 경과를조사하건대—동 회사는 조선인의손으로 처음제사회사로서멧해전부터 경영해나려오는것을 현사장 김종익(金鍾翊)씨가 인계한것인데 동씨가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야 결손상태에빠저 신구의 채무로 인하야 점점 어려운 방면으로 기우러지게되엿다 그러한중 지난 륙월 이십륙일까지 구견을 전부 소비하고 칠월 오일에 시견을사드리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회사에 원료인잠견을 공급하는 삼정물산회사(三井物産會社)로부터 두전(頭錢=契約金)을내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잠견의공급을 거절하엿기때문에 할수업시 그가티 휴업을 계속하게되는것이라고한다 그러하야 동 회사에서는 김(金)사장이하중역들이 삼정물산과 그동안 수차의 교섭이 잇섯고 그결과으는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그것이 여의하게 해결이 되지못하여영영 작업을하지못한다든지 또는 시일이 더 천연되는경우에는방금 기숙사에서 회사측이 제공하는 식사만으로 그날그날을사려가는일백이십명의 녀직공과또 이백오십명의 통근녀직공의 생활문제에 대하야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게될 것으로 그귀결은 자못 주목이된다

開業을苦待할뿐 某女職工談

기숙사에잇는 일백이십명 가운데 멧사람은 다른데로 갓지만 대부분 그대로 나머 잇습니다 통근직공도 영 어려운 사람은 멧사람이 다른회사로 갓지만 만히는 그대로 나머서 일시작을 고대합니다 아주 개업을 하지 못한다면 어떠케나시지만 금세 그것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햇는데 만일 그러다면 편곤난이 겟습니다 위선 회사에서 먹여주는것을 먹고 그대로 기다리고만잇습니다

幹部의活動으로 未久에開業豫定

會社側沈英燮氏談

별항 조선제사의 휴업에 대하야 회사당국자인 심영섭씨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그동안 늘 결손만 보아오든중 작년에는 한일만팔천원가량 리익을보앗습니다 그러니까 삼정측에는 새로히 두전(頭錢)을내이지아니하고 작년것을 넘겨오는셈치고 그대로 거래가 될줄 알앗든데 의외로 그편에서 말섯이 생긴것입니다 그러나 방금사장이하 중역들이 교섭을하는중이니까 멀지안흔 장래에는 개업이될줄로 밋고잇습니다

坡州郡에落雷

경긔도파주군 탄현면갈현리(坡州郡炭縣面葛峴里)농부 림태진(林泰辰)(三○)리종섭(李宗燮)(二○)최칠룡(崔七龍)(○)김갑수(金甲洙)(○)등 네명은 지난이십칠일오후한시이십분경 전긔갈현리 압논에서 김을매고잇슬때에 별안간 리성벽리과함께 호우가폭주함으로 비에쫏기여 집으로가든 도중 갑작히그들의 머리우에락리가되야 네명은모다 인사불성이되엿다가 리종섭 최칠룡 김갑수세명은 회생되고 림태진은 감전되야 필경숙고마럿다한다

威化島上端洞의 三千餘名은救出

安東朝鮮人罹災民千七百名

朝鮮人死者는全無

【安東縣서 高鳳梧特電】 금번의 안동의대수재에 조선인의 리재민은 구시가 백이십호 륙백명 강안통(江岸通)백삼십칠호의 오백사십인 하류도구(下六道溝)에 백오십호 일천륙백인으로 당지보통학교에 사백이십팔명 제지회사(製紙會社)에 삼백륙십삼인 수산장에 팔백팔십오인을 수용하고 안동현각기관에서 밥을지어먹이고잇스나 금후의 생도가 념려된다 그러고 위화도(威化島)하단동(下端洞)에 남어잇든 삼천명은 삼십일일 아침열시경비선과 푸로페라선 세척으로전부구출하얏스나상단동(上端洞)일천여명의 소식은 알길이업다안동현과 위화도에잇서서 조선인으로 죽은자는 한명도업다고한다

木材業損害만 一千萬圓超過

【安東三十一日發聯合】 금번안동강(鴨綠江)대수해는 안동(安東) 신의주(新義州)량시의 목재업자를 거의 전멸에빠지게하야 감수후 복구에는 상당한 긔간을 요할것으로 원목(原木)류실, 공장파괴등에 인한 손해는 대략 일천만원을 돌파할모양이다

安奉線橋頭驛서 試行機關車轉覆

【電通安東三十一日發】 안봉선은 사하진(沙河鎭)까지 기동차의시운전결과로 봉천서제르시렬차를운전하야 오다가교두역(橋頭驛)구내에서 탈선전복되엿다는 보도가잇섯스나 그뒤에철도국에 드러온전보에 의하면 오후네시삼십분교두의 발차전기하야 선구시행기관차(先驅試行機關車)한대가 통역구외신호소 부근에서 지반의 붕괴로전복되고 재류렬차는아무 이상업섯든것이 판명되엿다

溺死者一千餘名

安東滿洲人側犧牲者

삼십일일 오후네시 안동강안은 겨우 두자다섯치가 감수되여서 진흙바다로 화해버렷든 만주인거리도 점차로 감수해가는중이라 련일 음산하든 우천과 홍수에 위협을받고 고민하든 안동시민은 이제야겨우 안도하는 빗출보이여 완전히 감수되기를 고대하고잇다 만주인거리의 가옥류실과 도괴수효는 수백호에 달할모양으로서 동시에 죽은사람도 일천명을 초과하리라고보고잇다 시내의배수가 완전히되기까지는 아직도 압호로 열흘이나 걸릴모양으로 아직가태서는 자세한것을 알수업스나 일만당국은 목하 리재민의 구제에관한대책을고심강구중이라한다

太田에火災

九戶를燒失

損害二萬五千圓巨額

【大田支局電話】 삼십일일 오전두시경에 대전읍본정(大田邑本町)이정목사십번지 대전(大田)지물점에서 모기약을 피우다가 출화되여서 린접한명신(明信)포목점, 동아(東亞)리발관, 판본(板本)창고 미곡상점 삼호, 자전거포, 대장간 가일호등합게 아홉호가 전소되엿는데 소방대와경찰관이 극력노력한결과 동 다섯시경에 겨우 진화되엿다 우선 나타난손해액이 이만오천여원에 달하는데 전긔명신포목점이 일만원 화재보험에 들어잇슴따름으로 그외 피해가족오십여명이 삽시간에 집과재물을일코 가두에 방황케되엿는데 이곳이 조선인의 중심상업지대인만큼 목하상호부조의 정신하에 시민들이 피난민을 구원중이라 한다

堤防決潰를虛傳

避難後家藏窃取

警察은一團五名을搜査逮捕

災地에可憎한惡黨

【本社特派員高鳳梧電話】 이번 재해중에는 천재를 리용하야류언비설을 만들어 민중을속여도적질을한 악착스런무리가 잇섯다 삼십일일오전 세시경신의주일대의 주민들은 각각으로침수되여가는 압록강물을 저주하고 떨고잇슬때 어데로부터인지 『신의주동편의 제방이 터젓스니 속히피난하라』는 놀나운소식을전함으로 부민들은 누구할것업시 놀내여 집을떠나와속속 피난하엿고 당국에서도 이급보에저윽히 놀내여 총출동으로일시는 일대소동을 이르켯든바 나종에 자세히 조사해본즉 제방이 터젓다는것은 일종의 허무맹랑한 류언비어(流言蜚語)에 불과할뿐다 한외라 그말에의하야 주민들이 피난을나간 빈틈을타서 빈집에도적질을하고 도라단인 흉적이잇서 철저히내탐한중 부외마전동(麻田洞)사는 리태식(李太植)(二六)외 오명을검거하야 엄중취조한결과 그악당들의 가증한계획적 도적행동인것이 판명되엿다

屋上에서分娩

救護船서嬰兒는死亡

飛行場浸水로飛行三臺浸水

浸水田畓五萬町步

【新義州에서特派員高鳳梧電話】 신의주 민포동(敏浦洞)리재민남더이백여명은 삼십일일 오전에 고리선(高麗船)으로 근근히구원해내엿는데 그가운데는 임부한명이 잇서서 지붕우에서 피난중에 아이를 나앗는데 구조선에서 그만그아이는 죽어버렷다 한다

신의주비행장은 삼십일일 오전한시에 전부 침수되여 창고안에 잇든 려객기 두대와 평북경비기한대는 아주쓰지 못하게 되엿다 신의주비행장은 물이 빠진다드라도 당분간은 비행기가 발착하지못하게 되리라한다

평북도내의 전답의 피해 총면적은 광성(光城)삼교(三橋)박천(博川)등 수리조합만으로 오만정보가 침수되엿다 한다

그런데 평북도내의 침수가옥은 륙천오백여호이며 류실되된것은 칠십구호 전부흔은반분허진것이 십여호이며 국경도로는전부 문허저서 한동안은 도저히 복구될 가망이 업다한다

이마엔名譽의創痕 四年만에父兄相面

埠頭에는多數同胞가出迎

徐廷權選手無事歸還

【本社 東京支局長 金東進發信】 朝鮮이 나혼 世界的 拳豪 徐廷權君은 三十日正午 橫濱着 龍田丸으로 歸還하엿슴은 旣報한바어니와 배가 外港에 다엇슬때 余는 其父親 丙奎氏와伯兄 廷昱氏 그妹夫 黃乙秀氏와 더부러 港務部 란치로 出迎하야 구든握手를 나누엇는데 老親 丙奎氏는 이錦衣還鄕하는그립든아들을 만나자 끄러안고소리를내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名譽의 創痕이라할가 左眼上部의傷痕을 어루만지엿다。

를비롯하야 出迎이 盛大하엿스며 더욱橫濱愛隣團 李誠七氏以下 多數男女同胞의歡呼와 萬歲소리가 우렁차게울리워 感激의 눈물을 滴出하엿다

徐君은 當分間 東京에滯留하면서 八月下旬부터 三回의歡迎試合에臨하고 朝鮮에 들럿다가 다시「마닐라」로 遠征하게될듯하다. 다음은 徐君이 本社에보낸手記이다。

◇寫眞은 龍田丸甲板上에서… 向하야右로부터伯兄 徐廷昱氏 父親 徐丙奎氏 徐廷權氏 日

本社로보내는 徐選手메세ー지

제가 渡米하기는 千九百三十二年인즉 벌서三年이되엇습니다 三年동안 이러타할功績을나타내지 것이 업슴을甚히부끄러워합니다마는 橫濱埠頭에닷자 내가暫時라도잇지못하든 家親을 뵈옵고또 만흔同胞의 熱烈한歡迎을 바드매 두주먹만가지고 米洲를 放浪한 내에게도 우리同胞의 期待하심이 甚히 컷섯다 함을께닷게되는同時에 저의責任이 압날로 더욱무거워진다함을 切實이 생각하게되엇습니다。

米國에건너가서 떠나기前까지 링그에나서 或은白人 或은黑人 ——世界的빤담級의 强者와는거의對戰하여 그回數가 實로四十五回世界의 强豪라고하는「스타ー푸리스코」「녀영・토미느리얼」「반 과 對戰하야 [illegible] 年度 世界랑킹에 第六位의 榮位를어든것은 가마니 생각하매 無限히 기쁜드도하지만 남달은 環境에잇는 나로서는 말로할수업는 心性과 悲哀가 恒常내가슴속에서 떠나지를안헛습니다 왜그럴가요 (終)

中等野球決勝

新商22 邱商3

【甲子園】 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朝鮮第二次豫選決勝의 新義州商業對大邱商業戰은 三十一日 午後二時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柳(球) 藤井、田代、中村(壘)四氏審判 大邱商業先攻으로 開始한바 昨年의 優勝한 京城商業을 三十日 準決勝에서 擊破케한新義州商業은 餘勢가 아죽도 곳세여 第一回末에 一擧八點을獲得 終始邱商을 壓迫하야 結局 二十二A對三으로 新商이大勝하야 朝鮮代表로 甲子園에 出場케 되엿다

十二A對三으로 新義州商業大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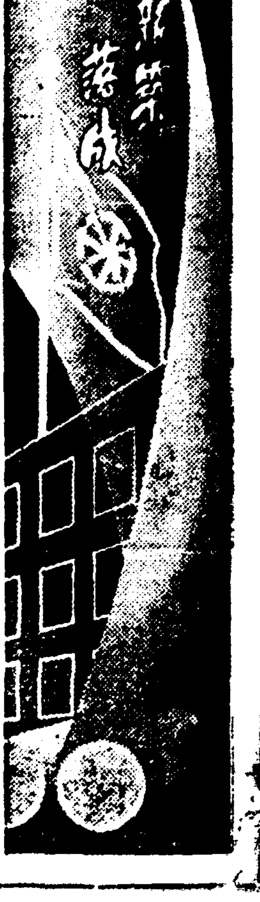
投捕 (邱商=徐、城、宋容 新商=太田、橫本)

得	邱商	0	0	0	0	0	3	0	0	0	3
點	新商	8	1	0	0	8	1	4	0	A	22A

全日本選拔庭球

京城팀猛練習

京日、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의全日本選拔對全京城팀對抗庭球戰은八月三、四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每日午後二時부터開始하리라는바全京城軍은 三十一日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午後五時부터瀨瀨監督指揮下에 練習을 開始하고잇스며 全日本選拔軍은 二日 午前三時에 京城驛에 到着할터이다



寶城

寶城郡兼白面石湖里 李秉淑

韓正述

寶城郡會泉面鳳岡里 丁海龍

寶城郡得粮面五峯里 李進來

寶城郡熊峙面中山里 宣太錫

寶城郡熊峙面中山里 卞均珉

寶城郡文德面龜山里 金鑛事務所 代表 金德烈

寶城郡鳥城面大谷里 李容祥

寶城郡鳥城面牛山里 金淳者璿

寶城郡鳥城面長 李容根

寶城郡得粮面五峯里 李浧來

寶城郡兼白面?里 朴海殷

寶城郡熊峙面江山里 金夢吉

寶城郡會泉面 文基樟

寶城郡兼白面石湖里 李極秀

寶城郡鳥城面龍田里 李璋根

江華

洪斗燮

金浦自動車部 江華支部 電話一二番

龍江汽船會社 京城元町四ノ三二 電話龍一〇四四 江華金浦方面每日出航 新造船龍江丸

溫水商會 和信連鎖店 金潤順

江華郡溫水市 金豐醸造場

中華料理 雅聚園 主 梁樹禮 / 復昇 主 張序棟

溫水十四場 主 朴鳳遠

信興商店 主 張用學

泌陽商會 主 金俊成

百忍醫院 院長 金泰勳

溫水里 金容煥 / 良道面協議員 尹進班 / 下道面協議員 柳正根

壯興藥局 沈相寔

三郎寫眞館 愼泰星

傳燈寺

吉祥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高興

高興郡占岩面事務所 職員一同

高興郡南陽面事務所 職員一同

高興郡豆原面事務所 職員一同

高興郡東江面 事務所 職員一同

高興郡過驛面 事務所 職員一同

高興郡道化面 事務所 職員一同

旱災로 全南道內에 萬餘町步荒蕪地化
代用作物播種面積은 五千六百町步에 不過

【光州】반도의곡창 전남지방은 미증유의 한발로 인하야 아직까지 전도를 통하야 일만팔천여정보(町步)의 우답이 이앙을 농으로 인하야 백답그대로 남어잇는 처참한 현편이라는대도당국에서는 그것의 구제책으로 수일전에 총독부 농무과의 량해를 구하야 도외로부터모밀종자 이천팔백석을 구입하여다가 각군농회를 통하야 도내한재지에 배부하야 대작토록 하고잇다는대 그대작면적은 오천륙백정보 예상이라고한다 그리고 남어지 일만삭천정보에 대하야는 한등의 대책까지도 서지못하고 다만 수수밧파할수바게는 아직까지 별도리가 업다고한다 그런대 금삭십일 현재까지 백답으로 남어잇는 수답면적을 각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갓다고한다

郡名	移秧未了面積
木浦府	二八町步
光州郡	五五一
潭陽郡	五四二
求禮郡	五四
和順郡	三四七
靈岩郡	一、〇四六
務安郡	五、一五七
羅州郡	二、六八九
咸平郡	三、七二五
靈光郡	三、〇七三
長城郡	一、五二九
計	一八、四三二

長時陰雨繼續으로 農作物枯死狀態
被害面積이相當히廣範圍로
長津山間地年事憂慮

【咸興】작년도의 재지 장진군(長津郡)에는 칠월삼일 까지의 보고에는 대개각농작물이 순조로 성육하여 저윽히 안심되엿스나 지난이십구일 함남도경찰부에 도달한 장진경찰서의 보고에의하면 동군북면대흥리(北面大興里)급교동리(橋洞里) 일대는 장긔간의음우게속으로 농작물에 담홍색(淡紅色)의 반점이 생기면서 고사(枯死)되는데그피해 범위가 상당히넓어 산지대 일반은 대개이와가튼 피해를밧고잇는모양으로 금년도 농작도 크게 우려되는가운데잇다고한다

南浦署突然活動
靑年一名을檢擧
日鑛能業指導嫌疑?

【鎭南浦】진남포일광제련소직공(職工)일천삼백여명의 동맹파업사건은 십여일만에 일단락을고하엿는데 그 진남포경찰서고등계에서는 배후에 엇떠한 선동이나 업는가하야 진남포 시내(鎭南浦市內)에잇는 좌익분자를를 검거에 착수중 지난이십팔일오후 돌연 고등계주임이하형사대가 룡강군삼화면(龍岡郡三和面)으로 자동차를모라 잠복중에잇든 한청년을 검거하여가지고도라와다는데 금후취조의 진전이 엇지나될는지 매우 주목하는바이라한다

趙康洞女史表彰

【咸安】삼십오년 동안이란 세월을 하로와가티 머리에 천창(天搶)이 대발하여 누어 신음하는 시어머니의 병을 시종일관으로 성심과성의를 다하야 구료에 진력을 다한 근세 히유의 효부(孝婦)가잇다 그는 함안군 가야면 신음리 신촌(咸安郡伽倻面新音里新村)에 거주하는 강봉수(姜鳳守)(五〇)씨의부인 조강동녀사(趙康洞女史)(四七)로 열네살때에 전긔강씨와 결혼한후 시모김칠원(金漆原)은 지금부터 삼십오년전에 머리에 악질의천창(天搶)이란병으로 오날에이르기까지 신음하는동안 전긔와가티 구료에진력하엿다는바 일반은 전긔조녀사의 지극한 효성에 칭송을 마지안는동시에 신음동회(洞會)에서는 지난이십륙일 신촌일신재에서포창(表彰)까지하엿다한다

梁山에 膓窒扶斯 【梁山】

경남양산군하에 장질부사환자가 발생되엿는데 조사한바에 의하면 양산군 상북면 내석리 (上北面內石里) 박동이(朴同伊)(二〇)를비롯하야 동면여락리 (東面余洛里) 최재식(崔在植)의 부자외 한사람의 환자가 잇슴을 탐지하야양산서에서는 동면 공립보통학교생도 일백팔십여명과 주민삼백여명에게 예방주사까지 실시하얏다는데 그중 중요사람의씨명은 다음과갓다

梁山郡上北面內石里 朴同伊
梁山郡東面余洛里 崔在植

三務校巡回音樂
碧潼서도盛況

【碧潼】신의주 삼무학교음악순회단(新義州三務學校音樂巡廻團)은 가는곳마다 대성황을 일운다함은 루루 보도되엿거니와 동음악단 차신부(車新夫)선생인솔의 십일명은 평북벽동에서 또열리게되여 지난 이십칠일 본보지국후원으로 당지 공립보통학교강당에서 본보지국장 김병수(金炳洙)씨의 사회로 동구시에 음악은 열리엿는데 정각전부터 구름가티 모혀드는 청중은 강당을차고 문밧까지 인산인해를일우어 실로 천여의청중박수갈채 재청 삼청 문자그대로 대성황을 일우고 동십일시반에 폐회하엿다고한다

延安支局後援
蹴球大會盛況

【延安】황해도 연안 황해당약국주최와 연안체육회급 본보연안지국 후원하에 전조선 축구대회는 가입단시이다체로 예정과가티 지난 이십팔、구량일간에 개최하엿든바 대성황을 일우어다하며 결국 결승전은 개성、강화의대전으로 우승은 송도구(松都俱樂部)팀이 엇다고한다

納涼大會盛況

【裡里】리리납량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일일부터 리리읍경성마장(競馬場)에서 매일밤게시부터 개최중인바 륙히 조선씨름과 리리한성관(漢城館)파 련남관(南館)에기의 가무(歌舞)는 일반관중을 도취케하며 장내설비와 계방는리 이만 음만에게 적지안한 위안을주게되다는바 개막이래 매야 초만원의 성황을일우고잇다고한다

萬餘圓의金密輸
犯人兩名畢竟送局

【新義州】신의주경찰서의 사법주임이 문사(門司)까지 출장하야 인수하야가지고 도라온 금괴 범인 김동석(金東錫)(三)은신의주진사정(眞砂町)에서 금은세공상을 하며 작년십일월로부터 금년사월까지 충남 대전춘일정(大田春日町)금은 세공상송야죽송(松野竹松)과 련락하야가지고 십수회에 공하야 가격일만이천여원어치의 금괴를 안동현으로 밀수하얏고 또그동생김동환(金東煥)에게 명령하야금년오월부터 륙월까지 사천사백팔십원가격의 금괴를 메매케하얏다는 사실취조가 끗나 지난이십구일 전긔송야와가티 신의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되얏다한다

十萬府民의宿願 道路鋪裝을實施
十二間道路와朝銀、驛前間等
面目이一新할大邱市

【大邱】남조선의 웅도의하나인 대구부내의 도로는 다른도회에서는 보지 못할만큼 도로의포장이 불충분하여 십일만부민의비난이 자자하야 대구부의금선무의하나로 되여오든바 엄마전공사비 긔채인가를 어든대구부에서는 활긔를 띄고오든팔월부터 도로포장(道路鋪裝)공사를 착수하기위하야 방금 공사준비를 진행중인데 제일착으로 십이간도로와 조선은행이 남인도와역전을 선착으로 포장하기로하고원정(元町)기타공사는 와사문제가 결정되후에 공사에착수하리라한다 이로써시내는 면목을일신케되리라고 하며 대구우편국에서는 이긔회에 전선(電線)을 지하선(地下線)으로 변경하고저 진행한다고한다。

電工感電卽死 【咸興】

지난이십구일 오후네시경 함흥부소회정 이정목 도로에서 전주(電柱)에올나가 고압선접속공사를하든 함흥대흥전긔회사 전공석주선(石珠璿)(二三)은 감전이되여 추락즉사하엿다고한다

暴雨中에落雷로
靑年四名이死傷
延白郡下樂善里에서

【延白】지난 이십칠일 오후삼시경에황해도 연백군 온정면락선리(溫井面樂善里)에서는 락뢰(落雷)로인하야 청년두명이 즉사하고 두명은 중상당하엿는데 어제 자세한내용을들으면 연일게속하는 폭우에 동리제방이문어저 동리청년회에서는 총출동을하여 동수축을하고 도라오다가 전긔와가티 벼락이떠러저동리 리수진(李壽眞)(二一)과 명삼석(明三錫)(二三)두명은무참이즉사하고 두명은 중상을당하엿다는바 생명에는 관계가 업스리라고한다

鄭炳舜氏美擧

【長湍】경기도 장단군 진동공보교(津東公普校)에는 아직까지 상당한경종의설비가 업서서 학교당국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야오든바 동면 초리 정병순(鄭炳舜)씨는 이에 늣긴바잇서 오십여원가티되는 경종한개를 자진하야 동교에 긔부하얏다는바 학교당국자는물론 일반학부형들은 감사

發生二百七十名 死亡二十五名
釜山府內傳染病猖獗

【釜山】요지음부산부내에 각종전염병이 유행하야 당국에서도 그방역에 두통거리라는데 지난 이십오일 현재로 적리(赤痢)이십팔명 루게오십사명 장질부사 이십사명 루게팔십사명 성홍열 루게삼십오명 지(猩紅熱)두명 루게삼십오명 지한다 뉴 푸터리아일명 루게삼십삼명 류뢰두(流腦痘)십일명 총루게 이백십칠명을 돌파하얏고 그중사망자로 적리팔명 장질부사사명 성홍열삼명 지푸테리아사명 류뢰두팔명 총합게 이십오명이라 한다

會寧驛荷物係員 巨額의公金竊取
流用한公金의還報에窮하야
犯人은當日에被逮

【會寧】지난 이십칠일 오후한시삼십분경 회령역 소하물계(會寧驛小荷物係)금고속에 들어잇든 돈 구백오십삼원은 어떤자의소위인지 깜쪽가티 도난을 당한사건이 돌발되자 이에대경실색한 회령역장은 즉시 회령경찰서에 급고하자 동서에서는 곳김사법주임(金司法主任)이하 계원이 총출동하야 범인 탐사에 분주하든중 동일 오후두시삼십분경에 동역 소하물계원 (小荷物係)심수범(沈壽範)(二〇)을 용의자로 검속취조한결과 범행을자백하엿다는데 그범행한 동기와경로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긔 심수범은 칠월초순경부터 이십원액면 대금이환증(代金引換證)으로 돈을틀려쓰든바 이러한방법으로 사오차나쓰다가 소비액이 일백륙십원에이르자 점점소비액은 늘어가고 갑흘길은 막연하야 생각다못하야 이십칠일오후 한시반경 금고속에 들러잇는돈 구백오십삼원을 절취하야 전소비액 일백륙십원을 갑고 남저지 팔백원을 지게군 김별남(金別南)(二〇)을 주어 감추도록한 전말을 자백하여버리엿다는데 절취액전부는 경찰의손을것처 회령역에 반환하엿다고한다

梁山農組事件
朴文奎遂被逮

【梁山】삼년전에 발생되엿든 양산사회를 뒤흔들고 세상의이목을 놀내게하든 양산농민조합사건의 련루자인 밤문규(朴文奎)는 삼백여명을 검거하든어마어마한그경계망을무사히돌파하고경남사천(泗川) 방면에서 배회중지난 칠월중순경에 사천경찰서원에게 체포되여 동월이십팔일에 양산서로 압래하얏데 취다는조가 끗난뒤에 송국하리라하며 일반주민으로 하야금 삼년전의 그어마어마한 사건을 다시금연상케한다

湖南少年少女雄辯大會
盛況을豫期하는
本社木浦支局後援

【木浦】긔보=호남평론(湖南評論) 의주최와 본사 목포지국의후원으로 오는 팔월십, 십일량일 오후칠시반부터 목포극장에서 개최하는 제일회 전 호남소년소녀웅변대회 (全湖南少年少女雄辯大會)는 이미 관게자의 열열한활동으로 만반준비에 분망중인데 긔이 밤두한것만큼 호남각처에서 참가신청이 답지하야 대성황이 예그되든바 연사의 숙박료도 주최측에서 부담한다고 하며당일은 장내처리상보통입장료금은 사십전으로하고 학생에 한하야는 삼십전이라한다

自動車事故一件 【仁川】

시내신화수리(新花水里)이십팔번지리복길(李福吉)(二〇)은 지난삼십일 오후사시경 상인천역전에서 조일(朝日)자동차부 운전수김선호(金選鎬)(二〇)가 운전하든 자동차와 충돌되여 중상을입엇다는데 전치일개월을 요하리라한다

羅津에小火 【羅津】

지난 이십팔일 새벽두시경에 라진창평김영만(金永萬)의 집에서 발화하야 동사시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 현재조사중이며 원인은 실화된것이라한다

醫專學生溺死 【馬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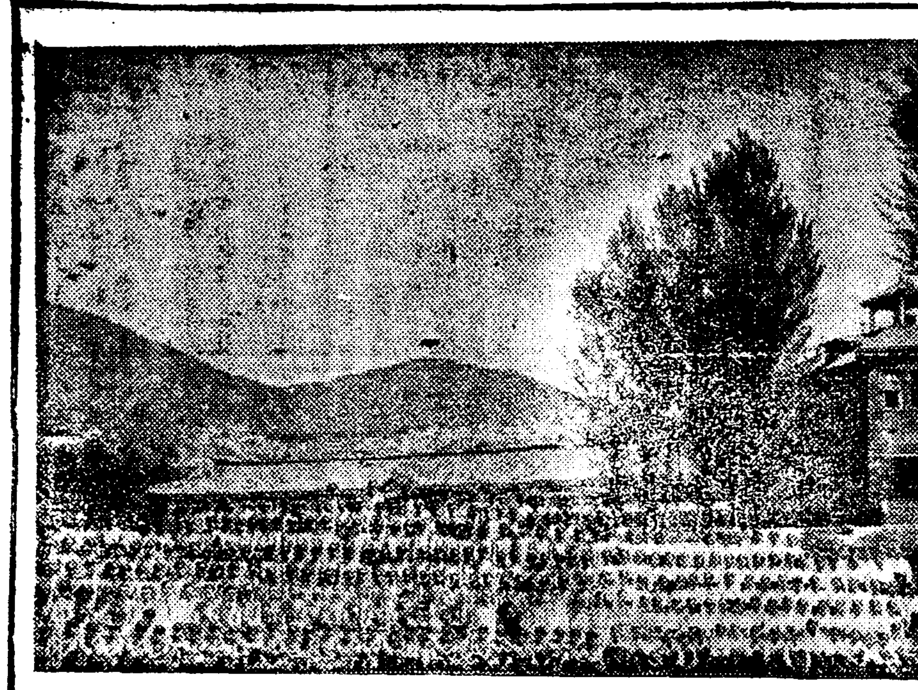
지난이십륙일오후네시반 마산월포해수욕장(月浦海水浴場)에서는 이십오륙세가량된 청년 한명이 빠저죽엇는데 그곳한공의를 청하야 인공호흡등으로 응급수당을 하는일방 도립병원장과 의사가 출동하야 구조에 진력하엿스나 아무 효과를 엇지 못하고 필경 절명되엿는데 그는 상주읍출생으로 현재대구의전 사년급에 재학중인 박형식(朴亨植)으로판명되엿다한다

下南初同面은 大豐作을豫想

【守山】밀양군 하남 초동면(下南初同面)에서는 수년동안 수해 혹은 한재로서 농작물의 전멸을 당하야 농민의 생활정도는 극도로 곤궁에 빠저잇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춘경기로부터 우금까지 우량이 적당하야 농작물은 순조로 성육중으로 지금 형편으로 대풍년이 예상된다는바 일반농민들은 깃븜을 이기지못한다고 한다

地方人事

▲玉置藏氏(陝谷驛長)西江驛轉任人事次 本報陝谷支局來訪
▲丹羽藏氏(陝谷驛長)新任人事次 本報陝谷支局來訪
▲中村作次氏(木浦常盤病院外科部長)新任人事次 本報木浦支局來訪



財團의完成이在邇한 隆運의寧邊崇德學校
—波瀾曲折三十年의回顧—

寧邊支局 一記者

우리 寧邊의崇德은 三十年의긴 歷史를 도라보면서 꾸준한發展의 勢를 지금에는 財團完成도 가까워서 우리의崇德은 바야흐로 萬年盤石에 올라섯으니 果然崇德은 朝鮮 教育界에 잇서서 업지못할 至寶이다 그리면 崇德이 거러온바 波瀾曲折이 重疊한 過去三十年史는 어떠한가?

記者는 이제 그過去를 回想함으로서 예전의 崇德을 一層崇德코저하는 바이며 아울러崇德의 隆運發展에 拍車를 加하려는것이다 朝鮮의 教育界-우리의 모-든 情勢가 다 그러하지만 地方教育機關으로 서의 〃崇德〃은 그지나온 歷路가 너무도 多事多難하엿든것이다。

×

只今으로부터 三十年前 九月十五日이라면 朝鮮이 政治的으로 內外多端한 그야말로 多事之秋이엿스니 때는 바야흐로 洋風이 불려드러 〃基督教〃도 처음 輸入되면서 비로소 崇德도 寧邊에뿌리를 밧게되엿스며 崇德을 비저내어머니는 當時의監理教宣教師이든 慕理是氏엿섯다 勿論 基督의信徒로서 當時 朝鮮에 教育機關을 세우게되엇은 그들의宣教政策의하나로 볼수잇지만三十年前이라면 예전의일이니 코놀톤洋人이 드려와서 學校를세우고 教會를세우고一方 信徒를 募集하는것은 그들로 한冒險으로 實行하엿슬것이지만 文明의洗禮를맛보지못하고『洋擾』에 가슴을 놀래인 民衆이지라 怪異와懷疑의눈으로 그들을 對하엿나니 그들宣教師들이 엄마나 宣教初에 만흔苦楚을 겻것는지 推測할수잇거니와 慕理是氏는 이에 조곰도 介意치안코 宣教와 教育에 꾸준한힘을 繼續하얏다 그리고 同四〇年三月에는 米國人 女宣教師가 來寧하야 女子教育機關으로 崇貞女學校를 設立하면서부터 兩者共히 教會經營學校로서의 面目이 서게되엿스며 同四十二年四月에 비로소 兩校의 第一回卒業式을 擧行하엿스니 崇德에서 五名崇貞에서 七名의 卒業生을 내엿다.

×

崇德의 名聲이 四方에 떨치자 學校는 狹窄을 늣기여 오든바 米國人『피피리도』氏의 寄附에 依하야 비로소 內外共히 完全하고 宏大한 石造二層의 校舍建築에 着手 되엿스니 이것이 崇德創立한지 八年만인 同四十五年 五月二十日 이엿스며 同時에 同八月七日付로 朝鮮教育令에 依하야 崇德、崇貞兩校의 合倂을 보게되여 崇德學校男子部 女子部의 併置認可를 밧하엿스며 趙工中인 石造校舍도 그 翌年 一月에 竣工되엿스니 地方에 잇서서 純石造建物로는 同校가 嚆矢여서 校舍도 [illegible]고 同年八月에는 學部大臣으로부터 兩校의 設立認可가나와다 그리하야 兩校는 逐日發展되여 生徒數가 점점增加하엿스며 信徒도 점점教理를 理解케되면서 校運은 隆昌의길을밟게되야우리의 崇德은 비로소 그存在를鄕間에 알니엿스니『寧邊의예수學校』하면모르는이가 업스리만치 崇德은우렁한 큰소리로 鐵甕城을울려들엇다 昇天의 勢로 올나가 今年 四月에는 다시 同內南山峴에 女子新石造二層 校舍를 建築하엿스며 다시 同年六月에는 教育會에 依하야 男女二部共히 高等科併置의 認可를 受하여 비로소 中等教育機關으로서의 面目도 가추게되여 大正三年三月二十六日 高等科 第一回卒業生六名을 社會에 내여노앗다。

그間 우리의 崇德은 아무苦境도 지나지안코 順風에 돗단格으로 자랏스니 記者는 가로되 이시이를 崇德의 幼年成長期라고 보거니와 그사이 同校의設立者로서 精神上 物質上으로 監理教를 代表하야 學校經營을 마터보든 慕理是氏가 創立十二年만에 設立者의 職을辭하고 新히 파-지氏가 設立者로 變更되엿다

×

그이듬해에 己未年運動이일어나자 우리 崇德에도 자최를남기엿스니 그運動에 손대엿든教職員과 生徒들의 亡命或은 處刑을 밧자學校는 暴風雨後의荒凉狀態가되여 겨우 校命만을이때끄러가는 恐慌에빠젓스니 이때가 崇德受難時代로 地方의 毅者와學父兄들은 校의 將來를念慮하야 校運挽回를 꾀하엿섯다 그리자 己未運動의 餘波도 점점 사라지자 少年學徒들의 熱誠集과 校營路者들의 熱誠으로 崇德은 曙光을 보게되엿스니 이에 伴한 地方人事의 向學熱도 漸次 高潮되여『崇德』을 살리자는 喊치는 高聲은 四方에서 이러낫다。

그러나 經營者인 監理教會에서는 經濟恐慌을 理由로 年年補助하는 經費를 縮少하게되여 同校는 文字그대로 維持難에 빠지여 우리는 風前燈火가튼 崇德運命을 바라보지 아니치못하게되여엿스니 이때에 地方人士들은崇德을-우리教育機關으로-누라는 標語下에 大正十二年二月에 寄附金 三萬圓을 모아校舍의 增築 設備充實을 圖하엿스나 深刻한 財界의 恐慌과 教會의年補金은 더욱 縮少되여 建築된 新校舍도 한갓 虛殼한 建物에 不過한 感을 주게되며 同校는 또한維持難이란暗礁에빠지여有志人士의憂慮하는바되엿다 (未完)

◇寫眞은崇德校舍全景과生徒一同

洪原
脚戲及自轉車大會
▲時日 八月五、六、七三日間(陰七月七、八、九、日)
▲場所 洪原鄕校洞競技場
◇主催 洪原市民一同 洪原靑年會
◇後援 朝鮮日報洪原支局 外二支局

興南
脚戲水泳鞦韆大會
▲時日 八月四、五兩日
▲場所 九龍里海水浴場
◇主催 九龍里市民一同
◇後援 朝鮮日報社興南支局

平壤
夏期學術講演會
▲時日 八月九日午後八時半
▲場所 白善行記念館
◇主催 平壤高普同窓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宣川

齒科一般口腔外科 新安齒科醫院 附屬口腔衛生相談所
京齒醫學士 朱道均
補綴科長 林景雲

宣川金融組合長 吳震泰

平安北道宣川郡宣川邑 朝鮮總督指定 信聖學校 電話一〇七番

宣川邑 吳鉉埼

宣川邑內 松林金銀鑛山 電話一三八番

宣川邑內 朴銀玉 電話一一一番

宣川邑 崔泰日

宣川邑 朝鮮高等料理 碧城樓 主吳三女 電話一五七番

宣川邑 金醫院 電話五二番

宣川邑 高等料理 琴松館 主李昇鉉

宣川邑 吳鏞源

宣川邑內 魯淵豊

宣川邑內 金碩龍

宣川本町 吳鉉煥 電話五三番

吳弼殷

平安北道會議員 洪致業

張利郁

宣川邑內 金應攝

宣川本町 大衆向百貨店 東一商會 主文興善 電話一五二番

宣川 保聖女學校 電話一五三番

宣川邑 靑山木工場 朴贊斌

宣川邑內 崔治連

宣川邑 金鳳梧

朝鮮日報社 宣川支局 長電話一一六番

百五條의 尨大한 滿洲國鑛業法 (一)

施行期日은 勅令으로 公布

滿洲地方은 天然의 寶庫을 입어 單只 그 地域이 廣大할뿐만아니라 各種資源이 豊富하야 特히 地下資源에 잇서서는 그 種類가 多岐多樣할뿐더러 量에잇서서도 無盡藏이라고 일컷는이만치 地下에는 各種鑛物이 들어잇다 一例를 들건대 現今 各種工業 또는 軍需上으로 업지못할 가장重要한 石炭、鐵鑛等을보면 石炭은 그埋藏量四十八億噸으로 推定되는데 年約 一千萬噸을 採掘하고잇고 鐵鑛은 그埋藏量 十二億噸으로 推定되는데 年約百萬噸을 採掘하야 銑鐵約三十萬噸을 生產하고잇스며 最近의 꼴드럿쉬에 金鑛의 價値에 注目한 이즈음 金特히 砂金은 埋藏量 四十五億噸이라하는바 江邊에 집신을 신고나가면 金도닥해치나 무려온다고까지 큰소리를하게되니 이얼마나 呼氣조흔말이냐! 如斯히 滿洲는 政治、軍事上의 意味보다도 그經濟上意味로도 各種의 要素의 約이되어잇는바 滿洲事變을 契機로 日本內地大資本의 滿洲鑛業進出은 刮目할만한바가 잇는데 于今까지 滿洲鑛業에는 民國三年에 公布된 鑛業條令이 援用되어오든바 三年有餘를 두고 調査硏究하여오든 新鑛業法이 附則까지 百五條라는 尨大한內容으로 公布되게되엇다 다음에 그全文을 紹介하기로 한다

法文內容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法에서 鑛業이라 稱함은 鑛物의 採掘及 이에 附屬하는 事業을 云謂함

第二條 本法에서 鑛物이라 稱함은 金鑛、銀鑛、白金鑛、銅鑛、鉛鑛、亞鉛鑛、錫鑛、鐵鑛、안치모니-鑛、알미늄鑛、니켈鑛、코발트鑛、硫化鐵鑛、크롬鐵鑛、망간鑛、蒼鉛鑛、重石鑛、水鉛鑛、水銀鑛、砒鑛、燐鑛、硫黃、黑鉛、石炭、石油(含油頁岩과 瀝靑)、土瀝靑、油瀝靑、油母頁岩、石灰石、白雲石、마그네사이트、螢石、長石、耐火粘土、重晶石、明礬石、石膏、硅石、滑石、石綿及雲母를 云謂함

第三條 아직 採掘치안흔 鑛物(鑛滓及廢鑛을包含)은 이를 國家의 所有로함

第四條 帝國人民 又는 帝國의 法令에 從하야 成立한 法人이 아니면 鑛業權者가 될수업슴 但 實業部大臣의 特別한 許可를 受한 者는 此限에 不在함

第五條 市街地、鐵道、軌道、道路、水道、運河、河湖、沼地、堤塘、廟宇寺社境內地、墓地、公園地其他의 營造物及建築物의 周圍六十米以內의 地表及地下에 잇서서는 所管官廳의 許可 또는 所有者及利害關係人의 承諾을 受치안흐면 鑛物의 採掘을 함을 不得함 所有者及利害關係人은 正當한 理由업시 前項의 承諾을 拒絕함을 不得함

第六條 鑛區가 重複한 境遇에 잇서서는 鑛業權者及租鑛權者는 서로 其權利가 制限됨

第七條 本法에 規定하는 鑛業權者 又는 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鑛業權 又는 租鑛權과 함께 移轉함 本法에 規定하는 鑛業權者 又는 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租鑛權의 設定 又는 消滅과 함께 租鑛權者 又는 鑛業權者에 移轉한 것으로 看做함 但 鑛業權의 消滅에 依한 租鑛權의 消滅의 境遇는 此限에 不在함

第八條 本法의 規定에 依하야 出願하려는 者、鑛業出願人、鑛業權者、租鑛權者、土地所有者 其他의 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對하야서도 其效力을 有함

第九條 國防 又는 資源保全上 必要가 잇는 境遇에 잇서서는 勅令으로써 地域 又는 鑛物을 指定하야 鑛業의 出願을 制限함을 得함

第十條 實業部大臣은 命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本法에 依한 權限의 一部를 鑛業監督署長에게 委任함을 得함

第十一條 本法에 잇서서 實業部大臣 又는 鑛業監督署長이라 하얏음은 興安各省內의 旗制를 施行하는 地域에 잇서서는 蒙政部大臣 又는 興安各省長으로 함

第二章 鑛業權

第十二條 鑛業權者는 鑛區에 잇서서 許可를 受한 鑛物을 採掘하고 이를 取得하는 權利를 有함

第十三條 鑛業權은 이를 物權으로 하고 本法에 定하는 것外 不動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十四條 鑛業權은 相續、讓渡、滯納處分、强制執行、抵當權及租鑛權의 目的이 되는 外 權利의 目的이 됨을 得함

第十五條 共同鑛業出願人 又는 共同鑛業權者는 그中 一人을 代表者로 하고 鑛業監督署長에게 屆出할것 共同出願이 업는 때는 鑛業監督署長이 이를 指定함 代表者는 國家에 對하야 共同鑛業出願人 又는 共同鑛業權者를 代表함 共同鑛業出願人 又는 共同鑛業權者는 組合契約을 한것으로 看做함

第十六條 鑛業을 하려는 者는 願書에 出願區域의 圖面을 添하야 實業部大臣에게 出願할것

第十七條 實業部大臣은 出願에 依한 鑛業이 公益을 害한다고 認하는 境遇 又는 鑛業을 할 價値가 업다고 認하는 境遇에 잇서서는 鑛業의 出願은 이를 許可치 안흠

第十八條 同一한 區域에 잇서서 二以上의 鑛業權은 이를 設定치안흠 但 異種의 鑛物에 對하야 各別히 鑛業을 함에 支障이 업는 境遇及 第四十一條에 規定하는 境遇에 잇서서는 此限에 不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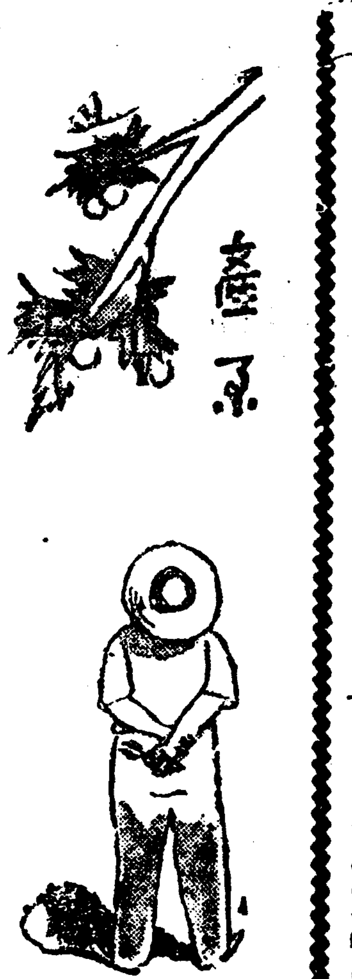
第十九條 同種의 鑛物에 對하야 同一한 區域에 對하야 鑛業의 出願이 競合한 때는 願書發送의 日時가 먼저되는 出願이 優先함 願書發送의 日時가 同一한 때는 鑛業監督署長은 期間을 指定하야 鑛業出願人에 對하야 協議를 하야 同出하라는 旨를 通知할것 鑛業出願人 前項의 規定에 依한 屆出을 하지안는 때는 抽籤에 依하야 優先者를 定함

第二十條 異種의 鑛物에 對하야 同一한 區域에 對하야 鑛業의 出願이 잇는 境遇에 잇서서 鑛業監督署長 各別히 鑛業을 함에 支障이 잇다고 認하는 때는 期日을 指定하야 各鑛業出願人에 對하야 協議를 하야 屆出하다는 旨를 通知할것 鑛業出願人前項의 規定에 依한 屆出을 하지안는 때는 願書發送의 日時가 먼저된 出願이 優先함 先앞 願書發送의 日時가 同一한 때는 抽籤에 依하야 優先者를 定함

第二十一條 鑛業出願區域 出願當時同種의 鑛物에 對하야 鑛區와 重複하는 때는 其重複하는 區域에 對하야서는 鑛業의 出願은 이를 許可치안흠

第二十二條 鑛業出願區域出願當時 異種의 鑛物에 對하야 鑛區와 重複하는 境遇에잇서서 實業部大臣 各別로 鑛業을함에 支障이잇다고 認하는때는 그 重複하는 區域에 對하야서는 鑛業의 出願은 이를 許可치안흠

第二十三條 前五條의 境遇에잇서서는 同一鑛床中에 存在하는 異種의 鑛物은 이를同種의 鑛物로 看做함



雪上加霜의 全南 棉害虫大發生

赤腐蟲、油虫이 廣範圍에 蔓延

棉作大減收難免狀態

早春以來의 霖雨乾燥로 因하야 移秧不能面積이 무려 一萬六千餘町步 그中 代作조차못할 面積이 三千町步나되야 農家의 不安이 尤甚한 全南은 雪上에 加霜으로 이번은 全道棉作에 赤腐蟲 油虫이 大大的으로 發生하야 被害가 莫大하다고하는데 이제 그原因을 들으면 長期에 亘한 旱魃때문이라고하는바 이 害虫의 發生은廣範圍이므로 救濟策도 漠然하야 棉의大減收를 免치못하리라고한다

滿洲棉協에서 棉作適地調査

技術員三十名을動員

【奉天】 滿洲棉花協會에서는 滿洲國의 棉花國策達成을 爲하야 二十個年計畫에 依하야 原種圃及 依託採種圃의 設定 優良品種의 選出 棉花의 指導獎勵 棉花耕作組合의 指導獎勵上 必要한 種種의 施設과 指導에잇서서 着着成果를 收하고잇는바 所要의 二十個年計畫의 根幹이 되는三十萬町步 一億斤의案 自體가 不備한統計와 指圖에依하야 樹立된것이니만치 果然幾許의 棉作地가잇는지는 依然不明하며 今後의棉作獎勵上에도 不滿과支障이 적지안흠으로 今回全滿洲主要棉作地方 二十四縣에 特派駐在技術員을 約三十名을 總動員하야 各地方의 棉作適地를 實地踏査하야 正確한 資料를엇기로되엿다한다

京畿小麥共販 農家大不滿

三井物產契約不履行으로

結局共販이 不振狀態

京畿道 今年小麥共販協定은 生產者로代表하는 農會對 買收者인 三井物產京城支店間에 締結을본바 契約締結當時는三井物產이 合格品 不合格品 全部를 買收하기로하야 契約成立을 보앗다는데 公販開始以來三井物產은 何等의 理由도업시 合格品만 買受하고 不合格品은 全然 買收치안으므로 農家에서는 멀리 共販場까지 가져왓든 不合格品을 그냥 가지고가지안으면 안되므로 生產農家는三井物產의 契約不履行에 對하야 不滿을 가질뿐만아니라 所謂生產者를 代表하야 契約締結을한 農會에 對하야 不平이 만타고한다 그러고 이로 因하야 京畿道內 小麥共販은 不振狀態에 이르럿다고한다

鰮油肥問題

過去와 現在及將來

(9) 朴炯壽

엇잿든 三菱、合同과 및 總督府는 契約滿了와 同時에 다시 무슨 形式의 契約이던지 出現식힐것은 必然的事勢이다 豫言者가 아닌 筆者로서 如此히 未來에 關한 問題를 判斷하기는 어려운일이나 이것은 吾人의經驗으로나 常識으로도 넉넉히 明白한 問題이기때문이다 左右間 前과 類似한 明文協定이 잇슬것이고 그後에는 亦是 前關係와 比等한 關係를 가지게 될것이다 그러하야 弱者인 生產者의 沒落은 過去史를 되푸리하게 되지나 아니할가 일이 이러케 되매 原則하야 生產者들의 死活은 岐路에 處할수밧게 업슬것이다 그러면 問題는 지방게 남지안흘것이다 그러면 生과死 말한바와가티 生과死 어느것인가 그러치안흐면 死活인가 그러치안흐면 奮起의 勇氣로서 起方策을 講究實行할것은 이에 愼重할것이 萬方文으로 鑑後에 所用이 잇스라 아직 남어잇으니 一刻이 根本的 破滅의 根本

인즉 畢竟 破綻을 未免하게된 그 根本理由가 那邊에 存在하나 또한 原因이 어대 잇는가 探索하야 이에 適切한對策을 樹立하여야 될것이다 이 決定的原因은 大體 두가지로 分類할수잇스니 其一은 遠因 그二는 近因 遠因은 資本主義社會의 原則的인 社會的 地位의 不利에 屬하며 近因은主로 人爲的 作用으로 生하는 不利에 屬하는바이다 그리하야 이遠因은 資本獨占化社會의 必然的 形態이며 近因은 이에 隨伴하는 不自然한 時代的 產物이다 그리고 對策은 大槪原因에 相應하는바이니 以下對策問題에論及하려고한다

▲對策

1、當業者自身의 無智를 退治 맛치 江界 會寧等地의 婦人들이 自己의 손으로서 親히 만든 綿花로서 自己의 저고리나 속옷을 만드러 입을줄은 꿈에도 생각지못하고 다만 大阪이나 東京에 잇는 紡織會社에서만 만드러낸 物品인줄만 생각하는것과 꼭마찬가지로鰮油肥製造業者들이 亦是自己의 商賣에 바르는 포마드나 自己의 顏面에 바르는 크림 씻는 비누는 自己들의 工場에서 親히 만드러낸 製品으로서 되것은 꿈에도 생각지못하고 다만어떤사람의 化學工業品을 쓰거니하고 잇는것이다 이것은 다만 無智한 까닭이다 當業者들은 自己들의 製品이 엇더한 階段을 迂廻하야 엇더한 過程에서 누구의손으로 處分되고 잇슴을 모르고잇슴이 常事이다 오늘날 社會構造下에서 避할수업는 被害야 엇지할수잇스랴 그러나 얼마던지 避할수잇는 損害를 自己自身의 無智한所致로 不知中에 밧게되는 例가 一二가아니다 또한 번연히 알고도 抗議의 條理를몰라

서 意思를 默殺식히고마는 例도만타 그 實例로는 販賣組合을 만들게한일이라던지 또는解消후에 販賣組合의 文書를 水產組合이 引受한일이라던지 解消後에 그重要分子를 無用의役員으로 配置한 일이라던지 共販組合解消後에 그들이 바더오든 多額의 手數料를 買受者들이 밧게되엿슴等은 何等不必要한 人爲的作用으로 생기는 損失이다 이런것은 當業者들이 意識分子라면 발서 除去되지 旣久한 事實일것이다 要컨대 當業者自身의 蒙을 啓함이 先決條件이다

2、不利한條件의 轉嫁를 絕對避할것

俗談에 시어머니역정에 개엽구리찬다는 말과가티 三菱이나、合同油脂其他 中間商人들에게서 받은 損失을 當業者들은 直接生產者인 漁民에게 轉嫁식히고잇는것이다 例一手買賣 實現以前에는 漁民이 잡어온 鰮魚를 한柄에 一圓이라던지 二圓으로 決定하야 買受한후 製品化한 다음 高價로販賣하든지 廉價로 販賣하던지하엿스나 一手買賣制로 되뒤에는 三菱이나 合同油脂에서 油粕時勢가 얼마라는것을 發表한다음에야 비로소 直接生產者의 生鰮魚價格을 製造業者들이 決定하게되엿다 이것은 다른 由가업는것이다 當業者들은 自己들의 받은損失을 直接生產者인 漁民에게 轉嫁식히는것뿐이다 그리하야 自己들에게有利하게 生鰮價格은 決定하려는것이다 皮相的으로 생각하건대 이다 그러케만 되면 製造業者들은 損害를 避할것가트니 이것은 큰 誤算인 同時에 相減策에 不過한것이다 웨 그러고하면 漁民이란 임이 그들(製造業者)에게 過重한 負債로서 漁奴가 되여

製造業者와 三菱、合同間에는 協定이란 形式이나 잇지마는 製造業者와 漁民間에는 協定은 姑捨하고 相議조차 別로한것이 다 그리하야 漁民의 잡어온 鰮魚를 自由自裁로 處理하고잇는것이다 이런 關係로 鰮價를 歐하게하야서 自己들에게 有利하게 하고잇다 鰮價만 歐하게하려가 漁民들의 負債는 나날이 더 重하게되며 絕望한 그들은 점점 怠業 하게되여 產能率까지 自然히 低劣하게되는것이다 그럼으로 製造業者들은 그 製品買受者들과 엇더한 方式을 取하던지하야 製品의價格을 올리게할 道理가 잇서야 지 그들에게서 無限한 損失을 當하고 그 代價으로 損失을 直接漁民에게 轉嫁식히려다가는相滅의 禍根을 招來하고야 말것이다

秋期配合原料肥 五千噸購買契約

昨日總督府에서締結

今秋季肥로서 使用할 配合原料의 共同購入에 對하야 過般來 總督府農產課에서 朝窒及滿洲化學에 交涉中이든바 三十一日 午前總督府에서 約五千噸의購買契約이 成立되엿다는데 總價額이 五十萬圓가량이며 朝窒引受分이 三千噸 滿洲化學引受分이 二千噸이라한다 以上契約을마치고난 農產課尾崎技師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原料肥 五千噸가량이면 今年秋肥로 充分하다 그러고 價格도 될수잇는 範圍에서 싸게하엿스니 今日京城市勢 一俵 四圓二十五錢에 比하면一俵에對하야 數十錢은 싸게될것이다 云云

昨年農產加工產額 三千六百萬圓

織物類가首位占領

昭和九年의 農產加工品 生產價額은 織物類의生產高가 綿布 三百九十二萬一千三百七十反 絹布 三百二十六萬六千六百七十五反 麻布 二百五十八萬五千七百十二反 苧麻布 二百四十萬六千六百五十反其他織物 十萬四千七百九反으로 價額은 綿布 六百二十七萬三千八百八十三圓 絹布 四百六十一萬四千四百十六圓 麻布 五百十八萬三千二百七圓 苧麻布 四百四十二萬八千八百四十二圓 其他織物 二十六萬七千九百二十九圓 合計 一千七百七十六萬八千三百十七圓이오 藁加工品生產高는 繩 四百二十五萬一千四十七貫 叭 六千七百一萬一千四十七枚 在來筵 二百七萬九千六百五十二枚 改良筵 五千九百六十一萬一千七百二十五枚 草履 百七十八萬二千五百九十八足 草鞋 二千萬二千五百九十八足 價額은 繩 五百七十二萬五千七百四十七圓 叭 一千六百十三萬五千五百三十六圓 改良筵 四十四萬四千三圓 在來筵 百八十八圓 草履 九萬二千二百四十二圓 草鞋 九十九萬九千六百九十三圓 其他 三十萬五千二百六十二圓 合計 一千六百五十四萬四千四十一圓인데 前記外에 莞草 蘆 萩 杞柳 竹等의 物品 九十三萬七千九百七十二圓이라는 好成績으로 昨年에比하야 ……

平南夏秋蠶에 人工孵化를實施

第一回配布二千餘枚

【平壤】 平南 蠶種同業組合에서는 夏秋蠶에 人工孵化施設을加하야 三十日 第一回로 二千八百五枚配布를하엿는바 內譯은다음과갓다

▲大同 三百枚▲順天 六百五十枚▲陽德 八百枚▲龍岡 百枚▲江東 百枚

黃海春繭共販 二十一萬七千圓

比前年十萬四千圓增

【甕津】 今年度 黃海道春繭共同販賣는 去六月十九日부터 開始되여 七月十五日에 畢하엿는데 共販成績은 數量一萬六百六十六石、同金額二十一萬七千六百四十二圓이라는 好成績으로 昨年에比하야 一千九百一石 十萬四千八百七十三圓의 엄청난增加로 最多出廻郡은 谷山郡의 二千七百石 金川郡 平山郡이다음가다고한다

南北棉繰에서 水原工場新設

今後京畿棉買收

三井系인 東北棉業繰棉會社는本店을 木浦에두고 支店을 鳥致院、滿州、永同에置하고 全南北忠南北產 棉花를 거의買收하야 繰綿을 하고잇는바 最近 京畿道水原에 工場新設을 計劃하고目下 工事中이라는바 今秋부터는 三千萬의 繰綿機를 設備하고 繰綿을 開始할터이라는데明年부터는 京畿道內產 棉花까지도 買取하야 繰綿을 하리라고한다

帝國製麻에서 豐山에工場增設

【咸興】 帝國製麻會社에서는 咸南豐山邑內에 製麻原料工場을 新設하고 지난 十八日부터 操業을 開始하엿다는데 同會社에서는 다시 豐山郡을 中心으로 六百町步를 一單位로하야 十二場即六千町步로 擴大하야 製麻原料製造及 亞麻栽培의 增產을 計劃하고잇스며 一個年間 三十萬斤의 製麻原料를 日本內地에 移出할 豫定이라 한다

質疑

一、重複質問일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問 廣木은 어데서 仕入하며 納、人造絹類는 어데서 仕入하는것이 有利하겟습니까 (春川一讀者)

答 京城府 鐘路一丁目金熙俊商店、京城府公平洞 大昌社、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廣昌商會等이 잇습니다

問 布木商을 하랴하옵는대有利한 直仕入店名을 下敎하시옵소서(春川崔勝鎭)

答 布木各種의 直仕入(有利한) 處를下敎하야주시옵소서 (春川崔若橫)

京畿道에서 棉花講習開催

一日부터 四郡서

京畿道에서는 八月一日부터安城、利川、驪州、振威各四郡에三日間식 棉花實地講習會를 開催한다는데 講師는 忠北沃川으로부터 實際家를 招來한다고한다

商品取引便覽 ⑯

水產品篇

素乾品

▲生產高 ◇生產數量=四、一一七、五八一貫 ◇生產金額=三、五八六、八一八圓 ▲調査數 ◇調査戶數=三一戶 ◇生產販賣額=八六〇、五八九圓 ▲出廻期=自九月至翌年一月 ▲包裝荷造=明太魚一二十尾式秋로頭部를꿰여 一連이라 稱한다 一括로하고 이를一級又는 一連이라 稱한다 大는五十級으로 小는三十級으로 一馱로하야 색기로結束한다 ▲取引經路 ◇生產者=日本內地市場 ◇生產者=仲買人=問屋=小賣商=消費者 ◇生產者=仲買人=消費地魚市場=小賣商=消費者 ◇生產者=產業組合=消費地魚市場=小賣商=消費者 ◇生產者=產業組合=消費地魚市場=小賣商=消費者 ◇生產者=消費地魚市場=仲買人=小賣商=消費者 ◇生產者=公設市場=仲買人=小賣商=消費者 ◇生產者=公設市場=消費者 ▲主要한販路=朝鮮內各地及滿洲地方 問屋=小賣商=仲買人=消費者 ▲取引方法=生產者對魚市場=現物을 市場에委託販賣한다 代金은 當日中에 決金되이 普通이다 其他는흔히 現品에對하야 相對賣買하고 代金은現金取引이 普通이다 ▲製造方法=明太魚의 內臟을꺼내고 鰓에걸어 乾燥하는데最初下位의 棚에걸어凍結持續二週間後 中位의棚에서二週間가량後 三位의棚에서 充分히乾燥식힌後에 十尾式秋로 頭部를꿰어 一括로 한다 (一級이라稱함) 其他、鮮魚의腸臟을 除去하고 數回물에씻어 日光에 乾燥한다 ▲原料의 種類及 產地=明太魚의 主產地는 咸鏡南北道沿岸이고 其他 鰈、章魚、鰊、보가지、새우、針魚、鯛魚、貝類等沿岸各地

煮乾品

▲生產高 ◇生產數量=三、九八、三九貫 十五袋를 一大箱子로한다 荷造費九十錢 右外十二乃至 十五袋를 거적대기에 싸는일이 잇다荷造費三十錢 ▲取引經路 ◇鰮煎子 ◇生產者=地元仲買人=地元問屋=仲買人=地方問屋=小賣商=仲買人=消費者 ◇生產者=地元問屋=仲買人=消費者 ◇生產者=地元問屋=仲買人=小賣商=消費者 ◇生產者=地元仲買人=地元問屋=仲買人=小賣商=消費者 ▲重要한販路=鰮煎子=朝鮮內及日本內地 滿洲 ▲取引方法=鰮煎子=生產者對市場問屋、現物을 委託販賣하야 其他는 荷爲替付送荷或은 內金領收後荷爲替付送荷하는境遇가만다 ▲製造方法=鰮煎子=生鰮을釜로 煮한後日光에乾燥한다 ▲原料의 種類及產地=鰮煎子=鰮

櫻干

▲生產高 ◇生產數量=七四、二三〇貫 ◇生產金額=二六九、七五一圓 ▲調査數 ◇調査戶數=五戶 ◇生產販賣額=一三〇、五〇〇圓 ▲出廻期=自九月至翌年三月 ▲包裝荷造=선물品은 化粧箱又는 化粧籠에넣는데 中蓋入紙包로한다 此費用一個約二十錢 其他는石油罐 或은 石油箱大의木箱子에 조히로싸서넣는데 一箱子容量八貫乃至十貫 ▲取引經路 ◇生產者=地元仲買商=小賣商=消費者 ◇生產者=委託問屋=小賣商=消費者 ▲主要한販路=朝鮮內、日本內地 ▲取引方法=現品或은 見本取引으로 代金의決濟는代金引換이 만타 約束手形或은 郵便爲替에依하는일도잇다 ▲製造方法=鮮魚의骨皮를 除去

白魚加工品

▲生產高 ◇生產數量=二六、五六〇貫 ◇生產金額=一〇六、八二〇圓 ▲調査數 ◇調査戶數=三戶 ◇生產販賣額=一七八、八〇〇圓 ▲出廻期=自四月初至五月末 ▲包裝荷造=大叺取引의境遇、石油相大의 木箱子에넣코 鐵帶를한다 ▲取引經路 ◇生產者=組合=仲買商=小賣商=消費者 ▲主要한販路=朝鮮內及 日本內地 ▲取引方法=見本或은 現品에對하야 取引契約을 締結하고代金은 現品引換에 依하든가荷爲替付로 送付하든가 或은約에 依하야 一個月가량의延決濟로한다 ▲製造方法=『煮干』=調味料를加하고 煮沸한 煮汁中에 新鮮한白魚를煮沸에 煎汁 約五分間너헛다가 꺼내여 乾燥網에옴기어 充分히 乾燥한後箱子에 넛는다 ▲原料의種類及產地=鴨綠江及錦江產白魚

副業產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査

京城 七月三十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三五─四五
토란		同	六〇─
馬鈴薯	白	同	二五─四五
同	赤	同	三〇─
人蔘		同	三〇─
支那胡瓜		百個	一、二〇─一、四〇
朝鮮胡瓜		同	五〇─
金 瓜		同	五〇─
白 瓜		同	三〇─
수박		一貫	五〇─一、〇〇
茄子		百個	二五─三五
일년감		一貫	一五─
시금치		同	一〇─
南瓜		同	二〇─
靑葱		十把	一〇─
쑥갓		同	一五─
미나리		十把	
蓮根		一貫	
生薑	大	同	五〇─
同	小	同	四〇─
마눌		百個	四〇─
乾蓮根		一斤	八〇─
松茸		百匁	二、〇〇─
椎茸	咸南	同	八〇─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	祝 新三貫		三、五〇─三、七〇
同	紅魁	同	二、五〇─三、二〇
同	紅玉	同	
梨	早生赤	五百匁	
同	今村秋	同	
同	晚三吉	同	
葡萄		一貫	五〇─二、〇〇
桃		同	二、〇〇─二、三〇
栗		一斗	三、五〇─三、八〇
잣		一石	三〇、〇〇─四〇、〇〇
실백		一斗	三、〇〇─
胡桃		一石	三〇、〇〇─三五、〇〇
銀杏		百斤	一八、〇〇─二五、〇〇
고추	日本	百斤	三、〇〇─一八、〇〇
고추가루		同	三〇、〇〇─四〇、〇〇
실고추		同	三五、〇〇─四〇、〇〇
大棗	中國產	百斤	三〇、〇〇─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一、五〇─
同 三吋以上	同	一、三〇─
同 一吋半以上	同	一、〇〇─
同 二吋以上	同	七〇─
同 一吋半以上	同	五〇─
同 梳毛	同	六、〇〇─七、〇〇

◇購買品

品名		單位	價格
豆餅		一〇貫	一、八〇─二、〇〇
成鷄用配合飼料		五斗	三、五〇─三、六〇
育雛用		同	三、六〇─
中雛用		同	三、四〇─
麩		百斤	三、八〇─
玉蜀黍	中割	九〇斤	
同	粉	同	
高粱	粉	百斤	
同	粉	九〇斤	
鷄虫用粉		二吨	
魚粉メ粕		十貫	二、〇〇─
糠		八五斤	
蠣殼		百二十斤	一、〇〇─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자라	一貫	一、八〇─二、三〇
붕어	同	二、五〇─
잉어	同	二、五〇─
미꾸리	同	三、〇〇─三、五〇
가붓치	同	一、〇〇─
메기	同	八〇─
뱀장어	同	三、〇〇─三、五〇
蜆貝	一升	一〇─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	二寸目	百尺	一、五〇─
四尺幅	一寸半目	同	一、六〇─
四尺幅	一寸目	同	一、八〇─
三尺幅	二寸目	同	一、二〇─
三尺幅	一寸半目	同	一、二五─
三尺幅	一寸目	同	一、四〇─
三尺幅	五分目	同	一、七〇─
靑金網	一分目	三尺	八〇─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鷄	百匁	三〇─
生豚	一貫	一、〇〇─
生兎	同	三〇─
鷄卵	一貫	一、七〇─
同	百個	
四季鳥卵	同	四、〇〇─
鴨卵	同	三、〇〇─
蜂蜜	一罐	一〇、〇〇─八、〇〇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一反	一六─二〇
經木眞田		同	一一─一六
芭柳		一貫	八〇─
稀草		同	二、〇〇─
漆		同	一二、〇〇─
椎茸		同	一〇、〇〇─
胡麻油		一斗	六、〇〇─
生落花生		百斤	一〇、〇〇─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九〇六	金銀鑛	江原道高城郡西面	七月十二日	元山府幸町 上原喜助
一一九〇七	同	平北碧潼郡碧潼面	同	碧潼郡碧潼面 代表者 金晟河
一一九〇八	同	同江界郡高山面	同	楚山郡楚山面 金昌植
一一九〇九	同	同熙川郡北面	同	同 金元植
一一九一〇	同	忠南論山郡陽村面	同十二日	鎭南浦府 咸澤奎
一一九一一	石炭	咸北吉州郡陽社面	同	京城府大倉町 井谷儀一郎
一一九一二	黑鉛	平北江界郡從南面	同	京城府岡崎町 代表者 李井文
一一九一三	金銀鑛	咸南甲山郡雲興面	同十三日	甲山郡雲興面 代表者 中野隆一
一一九一四	同	平北熙川郡南面	同	同 林享植
一一九一五	同	咸南北靑郡星岱面	同十五日	東京市 金井鑛山株式會社
一一九一六	同	忠南公州郡灘川面	同	青陽郡定山面 金
一一九一七	同	江原春川郡東內面	同	洪城郡
一一九一八	同	同春川郡北山面	同	京城府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一八〇五	慶北永川郡古鏡面	七月十一日	金敬禧任意脫退
同	同	同	李俊鉉任意脫退
一一八〇六	同永川郡古鏡面 慶州郡江西面	同	高橋寬久作任意脫退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五七二	忠南大田郡鎭岑面	七月三日	取消
九五九三	同燕岐郡全義面	同	同
四二八四	平南平原郡順安面	同	同
九六〇七	同德川郡城陽面	同	同
九六七三	同寧遠郡德化面	同	同
三八七四	同龍川郡東上面	同	同
八四九二	同泰川郡長林面	同	同

火賊 林巨正 (90)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四의三七』

꺽정이와 과부김씨가 가리살기로 작정이되엇는데 첫날밤에는 말이 대강령에만 그치엇고 이튼날밤에는 의론이 세절목에까지 미처섯다 꺽정이는 김씨를 부실대접이나할것과 김씨살림에 시량범절 돌보아줄것을 허락하얏고 김씨는 시아버지 늙은이와 양자한 아들아이를 데리고 천고향으로 보내버리고 돌아올 집에서 놀려살림하게할것을 자당하얏다 꺽정이가 김씨에게서 두번재 밥받을 새우고 돌아왓슬때 날은 아즉 다밝지 아니하얏는데 원씨가 발서 자리까지 거더치우고 오두마니 안저잇섯다

『왜 어느새 자릴 치웟서』

『곤하지안커든 좀 안저이애기하서요』

『이애기듯기가 그리케 급해서 오밤중에 잘두안자구 안젓서 사람두』

꺽정이는 혀를 낄낄 찻다

『나를 속이길 누가속여 별소리 다 하는군 속이원하게 자초지종 다 이애기해주지』

꺽정이가 첫날밤 행동한일과 이튼날밤 작정한일을 대충대충 이야기하얏다 원씨는 발서미리의 심하고 잇는일이라 별로 놀랍지 안는것을엇겟스나 일되둔일이 안되어 말할가 더워서 말한마디 안부하기도 더러워서 말한마디안코 가만히잇섯다

『살천궁녀두 거느리구 살려든 기집애개를 못데리구살까 공평하게해줄테니 념려말어』

꺽정이의말끄헤 원씨는 눈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매처 덧고 소사 흘럿다 그러나 이눈물은 꺽정이의말이 자아낸것이 아니고 자긔의설움이 터저나오는것이엇다

이날나제 답답어집에서는 김씨가 그시아버지를 보고 고향으로 이사가자고 의론을 내엇는데 그시아버지는 본래 서울을 시골만못하게녀기는 늙은이라 며느리의 의론을 선뜻 조타고 찬동하얏다 그러나 김씨가 그시아버지더러 아들아이와 비부쟁이를 다리고 세간짐을 령거하야가지고 먼저 나려가서 집도 수리하고 세간도 정돈하면 자긔는 서울집을 팔아가지고 추후하야 나려간다고 주장하는것은 무동하기 짝이업는 늙은이로도 조타고 찬동하기가 어려웟다

『그게다 무슨소리가』

하고 상을 오만상 찡그렷다

『집을 팔랴고하더라도 나다며 주선을해야지』

『주선썽만흔것 다봣세요 만리 말구 내말대루 작정하요』

늙은이가 며누리의 말을 슬리지못하야 그대로 작정하얏다

이날부터 불과 오륙일안에 씨가 이사짐을 내실리는데 다고 내노흔 풍종한 세간과 장술 숫 붓동가리 외에는 아메부처는 정운까지 다 떠서 실리고 먼저 떠나기로 작정한 일행을 집빠리와 한날 나가게하얏다 김씨의 시아버지 늙은이가 고향에 가서 다시 서를 기다리다못하야 다시 올라와보니 그동안 발서 이사내놈과 부러서 펄처노코 잇는판이라 할길업시 그대로 나려가서 늙은이의 의로 며느리가 급필마지죽어서 올다가 업도하고 와다고 사람의 아목을 속인것은 될일이다

김씨가 덩거런 빈집에 남아잇게되며부터 꺽정이는 을 넘어다니지안코 문으로 나놀고 밤낫와서 살다시피하 다 밧씨는 살끼가 잇스나 이잇고 원씨는 대살지고 야 모다 김씨의 살조코 른한것만 못한데다가 새로만 람이 이왕부터 가치사는사 달려서 꺽정이는 김씨집에 고들엇다 김씨는 그만큼 가 신통하게 다업서져서 때보담 우슬때가 만코 음으로 간간 긔성을 도 꺽정이의 꾸지람한다 번 숙지는까닭에 전에비 으로 딴사람과가틋다 전의 올개차반이라고하면 뒤의사람 거의 명주고름이라고할만하얏다 밧씨는 투레를 가주고 원씨 정실로 자처하고 또 김씨도 실이라고아니하는까닭에 꺽정 의 처가 광복산에잇는 본처 만 고 서울안에만 세사람이 엇다 (四의終)